

## 『통합 漢韓大辭典』의 國字 처리에 대하여\*

이 건 식\*\*

### 국문초록

이 글은 『韓國漢字語辭典』(1996)의 國字 처리 실태를 검토하고, 『통합 漢韓大辭典』에서 보완해야 할 國字에 대해 논의하였다.

國字 처리 실태의 측면에서 『韓國漢字語辭典』(1996) 등의 國字 판단 기준이 중국 역대 자서나 운서의 수록 여부에 있음을 밝혔고, 鮎貝房之進(1931)의 경우에는 자형 형성 방법의 고유성도 國字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음을 밝혔다. 『韓國漢字語辭典』(1996)의 國字 세부 유형으로 ‘구결 이두 합자, 합자, 속자, 동자, 약자, 구결자, 악보기호’ 등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세부 유형이 제시되지 않은 國字도 다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韓國漢字語辭典』(1996)에서 새로이 國字로 규정한 것이 다수 있음을 밝혔고, 일부의 國字에 대해서는 字形 상 고유성을 가지는 근거를 제시하였으며, 일부의 國字는 한자로 규정해야 할 근거를 제시하였다. 한편 누락한 國字도 다수 있음을 밝혔다. 鮎貝房之進(1931)에서 속자 즉 國字로 규정한 것들의 일부를 『韓國漢字語辭典』(1996)에서 國義字로 규정하여 일부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으나 일부는 긍정적 결과를 가져왔음을 밝혔다.

『통합 漢韓大辭典』의 國字 보완 측면에서 새로이 추가되어야 할 國字의 목록을 제시하였다. 남풍현(1989)에서 논의된 합자,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에서 채집된 구결 이두 합자, 노명호 외(2000)에서 정리된 이체자와 國字, 신라어 ‘\*꺠’를 표기한 한자 𪛗 등을 새로이 國字로 규정해야 함을 언급하였다.

[주제어] 漢韓大辭典, 國字, 漢字, 字形 形成 方法, 借字 表記

### 목 차

- |                          |                      |
|--------------------------|----------------------|
| I. 서 언                   | Ⅲ. 『통합 漢韓大辭典』의 國字 보완 |
| Ⅱ. 『韓國漢字語辭典』 國字 처리 실태 검토 | Ⅳ. 결 언               |

\* 이 연구는 2014년도 단국대학교 대학연구비의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이 연구는 2014년 10월 17일에 개최된 제6회 동양학연구원 사전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단국대학교 교수, 동양학연구원 편찬실장 / leeksl@dankook.ac.kr

## I. 서 언

『통합 漢韓大辭典』이란 임시적인 명칭으로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에서 2008년에 15권으로 완간한 『漢韓大辭典』과 1996년에 4권으로 완간한 『韓國漢字語辭典』을 내용적으로 통합한 사전을 말한다. 현재 두 사전의 내용 통합 작업이 데이터베이스 상에서 진행 중에 있으며 2017년 말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글은 『통합 漢韓大辭典』의 편찬 작업에서 고려해야 될 사항의 하나인 國字 처리 문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國字란 字形 상 한국 고유의 특성을 가진 한자를 말한다. 이 國字에는 몇 가지 세부 유형이 있다. 水田의 두 글자가 하나의 글자로 합자된 畝와 같이 중국의 역대 자서나 운서에서 전혀 동일한 자형을 발견할 수 없는 것, 大豆의 豆가 之의 형태로 서사되어 太의 자형을 형성한 것처럼 자형이 한자와 동일하나 자형의 형성 방법이 상이한 것, 우리말을 표기하기 위하여 ㅍ과 같이 음차 표기자 둘을 합자한 것, 구결자 ㅅ와 같이 한자 羅에서 생획된 것, 약자 ㅁ와 같이 한자 嚴에서 생획된 것 등이 있다.

이러한 國字는 字音이나 字意의 측면에서 한국 고유성을 가지는 한자와 더불어 오래 전부터 주목을 받아 왔다. 한국 고유한자에 대한 그 동안의 연구 성과를 간략하게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sup>1)</sup> 이 글의 주안점이 字形 상 한국 고유의 특성을 가지는 國字에 있으므로 아래 표에서 제시한 ‘글자수’는 國字를 중심으로 제시한다.

〈표 1〉 한국 고유한자 연구 문헌 목록과 글자수

연구 문헌	한국 고유한자 명칭	글자수
鄭東愈(1744~1808)의 『書永編』	俗用雜字, 兩字合爲一(字)	43
李圭景(1788~?)의 『五洲衍文長箋散稿』	東國土俗字	97
池錫永의 『字典釋要』(1909)	(朝)鮮(字)	55
朝鮮光文會의 『新字典』(1915)	朝鮮俗字	107
鮎貝房之進의 『俗字考』(1931)	俗	속자 150
홍기문의 『이두연구』(1957)	리두자	새로 만든자 39, 표음하는 자 15
김중훈의 『한국고유한자연구』(1992)	韓國固有漢字	국자 138
南豐鉉(1989)의 「韓國의 固有漢字」	한국 고유한자	합자 21, 형성자 29, 회의자 3, 생획자 61, 구결자 39, 구결 이두 합자 9
『韓國漢字語辭典』(1996)	韓國漢字	국자 201
최동언의 『조선식한문연구』(2000)	朝鮮式 漢字	음과 뜻을 모두 가진 글자 47 음만을 나타내는 글자 64 여러 소리 마디로 된 글자 5
『異體字字典』(2000)	韓國特用漢字	241

1) 李晔光의 『芝峰類說』, 黃胤錫의 『頤齋亂藁』, 李德懋의 『靑莊館全書』 「蟲葉記」에도 일부 한국 고유한자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진식(2012:189-191)을 참조할 수 있다.

朝鮮光文會의 『新字典』(1915)에 이르기까지는 한국 고유한자의 세부 유형을 통합하여 연구하여 왔으나 鮎貝房之進(1931)부터 최동언(2000)에 이르기까지 한국 고유한자의 세부 유형을 고려하면서 한국 고유한자의 특성을 연구하여 왔다. 그런데 <표 1>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연구 문헌마다 세부 유형의 명칭이 달랐다. 이것은 字形 상 고유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연구 문헌마다 다른 것임을 암시해 준다. 이러한 사실은 박성종(2005)에서 논의된 바 있다. 연구 문헌마다 세부 유형의 명칭이 다른 것은 더 나아가서 字形 상 고유성이 없는 한자들도 國字로 처리했을 가능성을 암시해 준다.

『韓國漢字語辭典』은 방대한 한국 문헌 자료를 검토하여 편찬한 것이다. 그리하여 『韓國漢字語辭典』은 그동안 國字로 이해하여 왔던 한자를 한어의 한자로 판명하였으며, 새로운 國字를 다수 발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반면에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기존의 한국 고유한자의 연구에서 제시된 國字 중 일부는 『韓國漢字語辭典』에 누락되어 있다.

『韓國漢字語辭典』이 발간된 1996년 이래로 한국은 물론 전세계는 정보화 사회로 급속도로 진입하게 되고 이에 따라 동아시아 삼국의 문헌 자료도 대규모적으로 디지털화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연구 환경의 비약적인 개선에 힘입어 이 연구에서는 『통합 漢韓大辭典』 편찬 작업의 國字 처리의 측면에서 두 가지 주요 문제를 논의하도록 한다. 즉 제2장에서는 『韓國漢字語辭典』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제3장에서는 통합 『漢韓大辭典』 편찬에서 보완해야 될 國字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다.

## II. 『韓國漢字語辭典』 國字 처리 실태 검토

### 1. 國字의 판단 기준

#### (1) 『韓國漢字語辭典』 國字의 개념

『韓國漢字語辭典』은 「일러두기」 제8항에서 한국 고유의 특성을 가진 한자를 國字, 國義, 吏讀 등으로 다 음과 같이 구분했다.

- (1) 우리 나라에서 만들어 써 온 고유문자와 동일한 한자이면서 우리나라에서만 쓰이는 音·訓이 있는 글자는 한글로 적시한 음 앞에 부호 \*를 써서 명시하고 그 글자 아래에 [國字], [字源], [國義], [吏讀]의 난을 두어 간단히 해설하였다.
- (2) 가. 𪛗 \*갈 [國字] 음은 갈, 뜻은 없다. [字源] 우리말의 '갈'음을 표기하기 위하여 加와 乙을 결합하여 만든 글자. 加의 음 '가'에 乙의 음 '을'의 종성 'ㄹ'을 결합하여 '갈'이 된다.  
나. 叔 아제비 숙 [國義] 아주버니. 남편의 형  
다. 乙 새 을 [吏讀] 을. 를. 목적격 조사로 쓰인다.

(1)은 한국 고유의 특성을 가진 한자로 [國字], [國義], [吏讀] 등 세 종류가 있음을 말한 것이다. 그리고 (2)는 [國字], [國義], [吏讀] 등의 사례를 예시한 것이다.

(2가)의 [字源]은 𪛗의 자형 형성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𪛗은 소위 ‘구결 이두 합자<sup>2)</sup>’로 부를 수 있는 것으로 『康熙字典』과 같은 한자 사전에는 실려 있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韓國漢字語辭典』에서 규정한 國字는 자형이 한국 고유의 것임을 말한 것이다. 叔은 한자로는 ‘작은 아버지’의 뜻이나 (2나)는 叔이 한국에서는 ‘큰 아버지’의 뜻으로 쓰인 것임을 보인 것이다. 따라서 『韓國漢字語辭典』에서 규정한 國義란 한자의 의미가 한국 고유의 것임을 말한 것이다. (2다)의 乙은 吏讀의 ㅃ 표기에 사용될 때의 의미를 기술한 것이다. 따라서 『韓國漢字語辭典』에서 규정한 吏讀란 한자를 빌어 와 우리말을 표기한 것을 말한다.

## (2) 國字에 대한 기존 연구의 판단 기준 분석

鮎貝房之進(1931), 홍기문(1957), 김종훈(1983), 『韓國漢字語辭典』(1996) 등에서 한국 고유한자의 세부 유형을 논의하였다. 관련된 해당 한자를 일부 제시하면서 이 연구들에서 정한 한국 고유한자 세부 유형 간의 개념적 차이를 대조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관련 연구별 한국 고유한자 세부 유형

기준	한자	鮎貝房之進 (1931)	홍기문(1957)	김종훈(1983)	韓國漢字語辭典 (1996)
形	𪛗	속자	새로 만든 자(음과 뜻이 서로 다른 자)	국자	국자
	洩	속자	새로 만든 자(음과 뜻이 일치하는 자)	국자	국자
	迕	속자	새로 만든 자(음만 있는 자)	국자	국자
	𪛗	속자	새로 만든 자(뜻만 있는 자)	국자	국자
	𪛗	속자	표음하는 자	국자	국자
音	嫗	속자	변해 쓰는 자(뜻과 음이 함께 변하는 자)	國音字	국의자
	帖	속음자	※ 언급하지 않았음	國音字	국의자
意	串	속훈자	변해 쓰는 자(뜻만 변하는 자)	國音字	국의자
	縛	속훈자	변해 쓰는 자(뜻만 변하는 자)	국의자	국의자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鮎貝房之進(1931)의 속자는 字形 상의 한국 고유성, 속음자는 字音 상의 한국 고유성, 속훈자는 字意 상의 한국 고유성을 지칭한 것이다. 결국 鮎貝房之進(1931)의 속자는 중국 역대 자서나 운서에 실려 있지 않은 것을 말한 것이고, 속음자와 속훈자는 중국 역대 자서나 운서에 해당 한자가 실려

2) ‘구결 이두 합자’는 남풍현(1989)의 것이다. ㅃ과 같이 종성 한글 표기 ‘ㄱ’이 있어 ㅃ을 ‘구결 이두 합자’로 부르는 것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그러나 ‘구결 이두 합자’ 중 ㅃ과 같은 것은 일부이고, 또 이러한 방식이 차자 표기 체계로부터 발달한 것을 고려하여 ‘구결 이두 합자’로 부르도록 한다.

있으나 각각 자음과 字形 상 한국 고유성을 가진 것임을 말한 것이다.

汙, 洩, 遑, 法, ㅌ 등에 대해서 鮎貝房之進(1931)은 속자, 홍기문(1957:62-89)은 ‘새로 만든 자’, 김종훈(1983)은 국자, 『韓國漢字語辭典』(1996)은 국자로 규정하였다. 이것은 이들이 중국 역대 자서나 운서에 실려 있지 않은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한편,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鮎貝房之進(1931)은 媿를 속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근거는 媿가 중국 역대 자서나 운서에 실려 있지 않은 것이었다. 그런데 사실 媿는 『집운』과 『자취』에 실려 있다.<sup>3)</sup> 이러한 사실을 반영하여, 홍기문(1957)은 媿를 ‘변해 쓰는 자(뜻과 음이 함께 변하는 자)’로 규정하였고, 『韓國漢字語辭典』(1996)에서는 ‘국의자’로 규정하였다. 그런데 김종훈(1983)은 媿를 ‘國音字’로 처리하고 있다. 이것은 김종훈(1983)이 媿를 한자의 관점에서 파악하지 않고, 차자 표기의 관점에서 파악한 것임을 말하는 것이다. 즉 媿는 ‘남편’을 뜻하는 우리말 ‘시’를 표기한 사실을 중시한 것이다. 그리하여 김종훈(1983)은 帖와 串을 차자 표기의 관점에서 바라보아 이들을 ‘國音字’로 규정하고 있다.

『韓國漢字語辭典』(1996)에서 帖의 훈과 음을 ‘체지 체로 제시하고,<sup>4)</sup> ‘체지(관아에서 이속을 채용할 때에 쓰는 임명장)’가 한국 고유 의미임을 들어 帖을 國義字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鮎貝房之進(1931)은 帖이 가진 字意 상의 고유성을 인정하지 않고, 帖이 가진 字音 상의 고유성만을 인정하여 帖을 속음자로 규정하였다. 串은 차자 표기에서 우리말 ‘꽃’을 표기하는 데에 쓰인 차자이다. 그런데 김종훈(1983)은 串이 차자 표기인 점을 고려하여 이를 國音字로 처리하였으나, 鮎貝房之進(1931), 『韓國漢字語辭典』(1996) 등은 ‘한자’라는 단일 관점에서 串이 가지는 字意 상 고유성에 주목하여 串을 鮎貝房之進(1931)은 속훈자, 『韓國漢字語辭典』(1996)은 국의자로 규정하였다. 그런데 ‘리두자’의 단일 관점에서 홍기문(1957)은 串을 ‘변해 쓰는 자(뜻만 변하는 자)’로 규정하였다.

결국 김종훈(1983)이 한자와 차자 표기라는 두 관점에서 字形 상 고유성을 파악하고 있는 것에 반해, 鮎貝房之進(1931), 『韓國漢字語辭典』(1996) 등은 ‘한자’라는 단일 관점에서 汙, 洩, 遑, 法, ㅌ 등의 字形 상 고유성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鮎貝房之進(1931)에서 제시한 속자의 개념과 김종훈(1983)에서 제시한 국자와 『韓國漢字語辭典』(1996)에서 제시한 국자의 개념 간에는 큰 차이가 있다. 鮎貝房之進(1931)이 속자로 규정한 것 중에 일부를 『韓國漢字語辭典』(1996)에서는 국의자로 규정하였고, 김종훈(1983)에서는 국자, 國音字, 국의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 (3) 가. 法, 替, 鑄

나. 扭, 洩, 卜, 鴛, 梁, 夕, 釧, 媿, 茸, 苦

다. 假, 棵, 藿, 甥, 槌, 糖, 迤, 埃, 棟, 垌, 栖, 莎, 膿, 根, 襦, 矣, 穗, 太, 把, 吓, 榼, 櫟

3) 『漢韓大辭典』, 媿, “사(시) 之 ○平 『集韻』 新茲切 sī 여자 이름에 쓰는 글자. 『集韻』, 「之韻」 媿, 女字. 『字彙』, 「女部」 媿, 女名.”

4) 『韓國漢字語辭典』, 帖, “점을 찮, 체지 \*체, 國義 一체지. 관아에서 이속을 채용할 때에 쓰는 임명장. (중략)二 관아에서 발행한 공문서.(하략)”

鮎貝房之進(1931)은 (3)의 한자를 모두 字形 상 한국 고유성을 가지는 것으로 파악하여 속자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韓國漢字語辭典』(1996)은 (3)의 것을 모두 국의자로 규정하였고, 김종훈(1983)은 (3가)를 국자로, (3나)를 國音字로, (3다)를 국의자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鮎貝房之進(1931), 김종훈(1983), 『韓國漢字語辭典』(1996) 등에서 적용한 자형 고유성의 판단 기준이 다른 것에서 발생한 것이다. 즉 鮎貝房之進(1931)이 중국 역대 자서나 운서의 수록 여부는 물론, 자형 발생의 고유성 여부까지도 字形 상 고유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음에 반해, 『韓國漢字語辭典』(1996)은 오로지 중국 역대 자서나 운서의 수록 여부만으로 字形 상 고유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김종훈(1983) 역시 중국 역대 자서나 운서의 수록 여부만으로 字形 상 고유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으나 『韓國漢字語辭典』(1996)과는 다르게 (3나)와 같이 우리말을 차자 표기한 것을 별도로 國音字라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한국 고유한자 (3다)의 太는 한자 太와 자형 구성 방법이 상이한 것에 근거하여 鮎貝房之進(1931)은 (3다)의 太를 속자로 규정하였다. 즉 鮎貝房之進(1931)은 太의 획의 '점'획이 '콩'을 상형한 것이라는 종래의 견해에 기반하여, 太의 획을 상형에 의한 한국 고유한자로 파악한 것이다. 한편 남풍현(1989:98-99)에서는 일본 正倉院에 보존된 신라의 出納帳에 한 번은 '大豆'로 나오고, 한 번은 '太之'로 기입된 것에 착안하여 太의 '점'획이 '豆'에서 온 것임을 밝혔다. 이것은 한국 고유한자 太의 자형이 '大豆'에서 기원한 것임을 말한 것이다. 그런데 김종훈(1983)과 『韓國漢字語辭典』(1996)은 '콩'을 의미하는 太가 한자 太와 자형이 동일하다는 점에서 太를 국의자로 규정하였다.

또한 (3나)의 卜은 차자 표기에서 '짐[負]'의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鮎貝房之進(1931)은 卜을 負의 俗字로 파악하고, (3나)에 제시된 卜에 대하여 자형 발생의 고유성을 감안하여 이를 俗字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韓國漢字語辭典』(1996)에서는 (3나)의 卜이 漢字 卜과 자형이 일치한다는 점에서 (3나)의 卜을 국의자로 규정하였다. 또 김종훈(1983)은 (3나)의 卜이 차자 표기에 쓰인 점을 감안하여 國音字로 규정하였다.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 고유한자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 적용한 國字 판단 기준과 한국 고유 한자의 인식 체계를 간략하게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편의 상 아래 표에서 鮎貝房之進(1931)을 A, 홍기문(1957)을 B, 김종훈(1983)을 C, 『韓國漢字語辭典』(1996)을 D로 제시한다.

〈표 3〉 국자 판단 기준과 한국 고유한자 인식 체계

기준		A	B	C	D
국자 판단 기준	중국 역대 자서나 운서의 수록 여부	○	○	○	○
	자형 상 고유성의 근거		○		
한국 고유 한자 인식 체계	한자와 차자 표기의 두 관점	○			
	한자의 단일 관점		○	○	
	리두자의 단일 관점				○

## 2. 國字의 세부 유형

『韓國漢字語辭典』의 「일러두기」에서는 國字의 세부 유형이 명시적으로 기술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韓國漢字語辭典』의 뜻풀이와 字源에는 세부 유형의 명칭이 제시되어 있다. 즉 『韓國漢字語辭典』의 해당 字源에서 ‘무엇과 무엇을 결합하여 만든 글자’로 풀이하고 있는 것과 해당 글자의 뜻풀이에서 각각 ‘구결자, 악보 기호, 속자, 약자, 동자’ 등의 말로 字形 상의 세부 유형의 특성을 기술하고 있다. 『韓國漢字語辭典』의 뜻풀이와 字源에 기술된 이러한 용어에 따라 『韓國漢字語辭典』에 수록된 201자의 國字를 세부 유형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무엇과 무엇을 결합하여 만든 글자’로 풀이한 것은 ‘구결 이두 합자’와 ‘합자’로 나누어 제시한다. 그리고 속자, 약자, 동자 등의 경우에는 오른쪽 ( ) 속에 본자가 되는 한자를 함께 제시한다.

### (4) 가. 구결 이두 합자(53자)

고유어 종성 ㄱ 표시: 𪎭, 𪎮, 𪎯

고유어 종성 ㄴ 표시: 𪎱, 𪎲, 𪎳

고유어 종성 ㄷ 표시: 𪎴, 𪎵, 𪎶, 𪎷, 𪎸, 𪎹, 𪎺, 𪎻, 𪎼, 𪎽, 𪎾, 𪎿, 𪏀, 𪏁, 𪏂, 𪏃, 𪏄, 𪏅, 𪏆, 𪏇, 𪏈, 𪏉, 𪏊, 𪏋, 𪏌, 𪏍, 𪏎, 𪏏, 𪏐, 𪏑, 𪏒, 𪏓, 𪏔, 𪏕, 𪏖, 𪏗, 𪏘, 𪏙, 𪏚, 𪏛, 𪏜, 𪏝, 𪏞, 𪏟, 𪏠, 𪏡, 𪏢, 𪏣, 𪏤, 𪏥, 𪏦, 𪏧, 𪏨, 𪏩, 𪏪, 𪏫, 𪏬, 𪏭, 𪏮, 𪏯, 𪏰, 𪏱, 𪏲, 𪏳, 𪏴, 𪏵, 𪏶, 𪏷, 𪏸, 𪏹, 𪏺, 𪏻, 𪏼, 𪏽, 𪏾, 𪏿, 𪐀, 𪐁, 𪐂, 𪐃, 𪐄, 𪐅, 𪐆, 𪐇, 𪐈, 𪐉, 𪐊, 𪐋, 𪐌, 𪐍, 𪐎, 𪐏, 𪐐, 𪐑, 𪐒, 𪐓, 𪐔, 𪐕, 𪐖, 𪐗, 𪐘, 𪐙, 𪐚, 𪐛, 𪐜, 𪐝, 𪐞, 𪐟, 𪐠, 𪐡, 𪐢, 𪐣, 𪐤, 𪐥, 𪐦, 𪐧, 𪐨, 𪐩, 𪐪, 𪐫, 𪐬, 𪐭, 𪐮, 𪐯, 𪐰, 𪐱, 𪐲, 𪐳, 𪐴, 𪐵, 𪐶, 𪐷, 𪐸, 𪐹, 𪐺, 𪐻, 𪐼, 𪐽, 𪐾, 𪐿, 𪑀, 𪑁, 𪑂, 𪑃, 𪑄, 𪑅, 𪑆, 𪑇, 𪑈, 𪑉, 𪑊, 𪑋, 𪑌, 𪑍, 𪑎, 𪑏, 𪑐, 𪑑, 𪑒, 𪑓, 𪑔, 𪑕, 𪑖, 𪑗, 𪑘, 𪑙, 𪑚, 𪑛, 𪑜, 𪑝, 𪑞, 𪑟, 𪑠, 𪑡, 𪑢, 𪑣, 𪑤, 𪑥, 𪑦, 𪑧, 𪑨, 𪑩, 𪑪, 𪑫, 𪑬, 𪑭, 𪑮, 𪑯, 𪑰, 𪑱, 𪑲, 𪑳, 𪑴, 𪑵, 𪑶, 𪑷, 𪑸, 𪑹, 𪑺, 𪑻, 𪑼, 𪑽, 𪑾, 𪑿, 𪒀, 𪒁, 𪒂, 𪒃, 𪒄, 𪒅, 𪒆, 𪒇, 𪒈, 𪒉, 𪒊, 𪒋, 𪒌, 𪒍, 𪒎, 𪒏, 𪒐, 𪒑, 𪒒, 𪒓, 𪒔, 𪒕, 𪒖, 𪒗, 𪒘, 𪒙, 𪒚, 𪒛, 𪒜, 𪒝, 𪒞, 𪒟, 𪒠, 𪒡, 𪒢, 𪒣, 𪒤, 𪒥, 𪒦, 𪒧, 𪒨, 𪒩, 𪒪, 𪒫, 𪒬, 𪒭, 𪒮, 𪒯, 𪒰, 𪒱, 𪒲, 𪒳, 𪒴, 𪒵, 𪒶, 𪒷, 𪒸, 𪒹, 𪒺, 𪒻, 𪒼, 𪒽, 𪒾, 𪒿, 𪓀, 𪓁, 𪓂, 𪓃, 𪓄, 𪓅, 𪓆, 𪓇, 𪓈, 𪓉, 𪓊, 𪓋, 𪓌, 𪓍, 𪓎, 𪓏, 𪓐, 𪓑, 𪓒, 𪓓, 𪓔, 𪓕, 𪓖, 𪓗, 𪓘, 𪓙, 𪓚, 𪓛, 𪓜, 𪓝, 𪓞, 𪓟, 𪓠, 𪓡, 𪓢, 𪓣, 𪓤, 𪓥, 𪓦, 𪓧, 𪓨, 𪓩, 𪓪, 𪓫, 𪓬, 𪓭, 𪓮, 𪓯, 𪓰, 𪓱, 𪓲, 𪓳, 𪓴, 𪓵, 𪓶, 𪓷, 𪓸, 𪓹, 𪓺, 𪓻, 𪓼, 𪓽, 𪓾, 𪓿, 𪔀, 𪔁, 𪔂, 𪔃, 𪔄, 𪔅, 𪔆, 𪔇, 𪔈, 𪔉, 𪔊, 𪔋, 𪔌, 𪔍, 𪔎, 𪔏, 𪔐, 𪔑, 𪔒, 𪔓, 𪔔, 𪔕, 𪔖, 𪔗, 𪔘, 𪔙, 𪔚, 𪔛, 𪔜, 𪔝, 𪔞, 𪔟, 𪔠, 𪔡, 𪔢, 𪔣, 𪔤, 𪔥, 𪔦, 𪔧, 𪔨, 𪔩, 𪔪, 𪔫, 𪔬, 𪔭, 𪔮, 𪔯, 𪔰, 𪔱, 𪔲, 𪔳, 𪔴, 𪔵, 𪔶, 𪔷, 𪔸, 𪔹, 𪔺, 𪔻, 𪔼, 𪔽, 𪔾, 𪔿, 𪕀, 𪕁, 𪕂, 𪕃, 𪕄, 𪕅, 𪕆, 𪕇, 𪕈, 𪕉, 𪕊, 𪕋, 𪕌, 𪕍, 𪕎, 𪕏, 𪕐, 𪕑, 𪕒, 𪕓, 𪕔, 𪕕, 𪕖, 𪕗, 𪕘, 𪕙, 𪕚, 𪕛, 𪕜, 𪕝, 𪕞, 𪕟, 𪕠, 𪕡, 𪕢, 𪕣, 𪕤, 𪕥, 𪕦, 𪕧, 𪕨, 𪕩, 𪕪, 𪕫, 𪕬, 𪕭, 𪕮, 𪕯, 𪕰, 𪕱, 𪕲, 𪕳, 𪕴, 𪕵, 𪕶, 𪕷, 𪕸, 𪕹, 𪕺, 𪕻, 𪕼, 𪕽, 𪕾, 𪕿, 𪖀, 𪖁, 𪖂, 𪖃, 𪖄, 𪖅, 𪖆, 𪖇, 𪖈, 𪖉, 𪖊, 𪖋, 𪖌, 𪖍, 𪖎, 𪖏, 𪖐, 𪖑, 𪖒, 𪖓, 𪖔, 𪖕, 𪖖, 𪖗, 𪖘, 𪖙, 𪖚, 𪖛, 𪖜, 𪖝, 𪖞, 𪖟, 𪖠, 𪖡, 𪖢, 𪖣, 𪖤, 𪖥, 𪖦, 𪖧, 𪖨, 𪖩, 𪖪, 𪖫, 𪖬, 𪖭, 𪖮, 𪖯, 𪖰, 𪖱, 𪖲, 𪖳, 𪖴, 𪖵, 𪖶, 𪖷, 𪖸, 𪖹, 𪖺, 𪖻, 𪖼, 𪖽, 𪖾, 𪖿, 𪗀, 𪗁, 𪗂, 𪗃, 𪗄, 𪗅, 𪗆, 𪗇, 𪗈, 𪗉, 𪗊, 𪗋, 𪗌, 𪗍, 𪗎, 𪗏, 𪗐, 𪗑, 𪗒, 𪗓, 𪗔, 𪗕, 𪗖, 𪗗, 𪗘, 𪗙, 𪗚, 𪗛, 𪗜, 𪗝, 𪗞, 𪗟, 𪗠, 𪗡, 𪗢, 𪗣, 𪗤, 𪗥, 𪗦, 𪗧, 𪗨, 𪗩, 𪗪, 𪗫, 𪗬, 𪗭, 𪗮, 𪗯, 𪗰, 𪗱, 𪗲, 𪗳, 𪗴, 𪗵, 𪗶, 𪗷, 𪗸, 𪗹, 𪗺, 𪗻, 𪗼, 𪗽, 𪗾, 𪗿, 𪘀, 𪘁, 𪘂, 𪘃, 𪘄, 𪘅, 𪘆, 𪘇, 𪘈, 𪘉, 𪘊, 𪘋, 𪘌, 𪘍, 𪘎, 𪘏, 𪘐, 𪘑, 𪘒, 𪘓, 𪘔, 𪘕, 𪘖, 𪘗, 𪘘, 𪘙, 𪘚, 𪘛, 𪘜, 𪘝, 𪘞, 𪘟, 𪘠, 𪘡, 𪘢, 𪘣, 𪘤, 𪘥, 𪘦, 𪘧, 𪘨, 𪘩, 𪘪, 𪘫, 𪘬, 𪘭, 𪘮, 𪘯, 𪘰, 𪘱, 𪘲, 𪘳, 𪘴, 𪘵, 𪘶, 𪘷, 𪘸, 𪘹, 𪘺, 𪘻, 𪘼, 𪘽, 𪘾, 𪘿, 𪙀, 𪙁, 𪙂, 𪙃, 𪙄, 𪙅, 𪙆, 𪙇, 𪙈, 𪙉, 𪙊, 𪙋, 𪙌, 𪙍, 𪙎, 𪙏, 𪙐, 𪙑, 𪙒, 𪙓, 𪙔, 𪙕, 𪙖, 𪙗, 𪙘, 𪙙, 𪙚, 𪙛, 𪙜, 𪙝, 𪙞, 𪙟, 𪙠, 𪙡, 𪙢, 𪙣, 𪙤, 𪙥, 𪙦, 𪙧, 𪙨, 𪙩, 𪙪, 𪙫, 𪙬, 𪙭, 𪙮, 𪙯, 𪙰, 𪙱, 𪙲, 𪙳, 𪙴, 𪙵, 𪙶, 𪙷, 𪙸, 𪙹, 𪙺, 𪙻, 𪙼, 𪙽, 𪙾, 𪙿, 𪚀, 𪚁, 𪚂, 𪚃, 𪚄, 𪚅, 𪚆, 𪚇, 𪚈, 𪚉, 𪚊, 𪚋, 𪚌, 𪚍, 𪚎, 𪚏, 𪚐, 𪚑, 𪚒, 𪚓, 𪚔, 𪚕, 𪚖, 𪚗, 𪚘, 𪚙, 𪚚, 𪚛, 𪚜, 𪚝, 𪚞, 𪚟, 𪚠, 𪚡, 𪚢, 𪚣, 𪚤, 𪚥, 𪚦, 𪚧, 𪚨, 𪚩, 𪚪, 𪚫, 𪚬, 𪚭, 𪚮, 𪚯, 𪚰, 𪚱, 𪚲, 𪚳, 𪚴, 𪚵, 𪚶, 𪚷, 𪚸, 𪚹, 𪚺, 𪚻, 𪚼, 𪚽, 𪚾, 𪚿, 𪛀, 𪛁, 𪛂, 𪛃, 𪛄, 𪛅, 𪛆, 𪛇, 𪛈, 𪛉, 𪛊, 𪛋, 𪛌, 𪛍, 𪛎, 𪛏, 𪛐, 𪛑, 𪛒, 𪛓, 𪛔, 𪛕, 𪛖, 𪛗, 𪛘, 𪛙, 𪛚, 𪛛, 𪛜, 𪛝, 𪛞, 𪛟,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𪜀, 𪜁, 𪜂, 𪜃, 𪜄, 𪜅, 𪜆, 𪜇, 𪜈, 𪜉, 𪜊, 𪜋, 𪜌, 𪜍, 𪜎, 𪜏, 𪜐, 𪜑, 𪜒, 𪜓, 𪜔, 𪜕, 𪜖, 𪜗, 𪜘, 𪜙, 𪜚, 𪜛, 𪜜, 𪜝, 𪜞, 𪜟, 𪜠, 𪜡, 𪜢, 𪜣, 𪜤, 𪜥, 𪜦, 𪜧, 𪜨, 𪜩, 𪜪, 𪜫, 𪜬, 𪜭, 𪜮, 𪜯, 𪜰, 𪜱, 𪜲, 𪜳, 𪜴, 𪜵, 𪜶, 𪜷, 𪜸, 𪜹, 𪜺, 𪜻, 𪜼, 𪜽, 𪜾, 𪜿, 𪝀, 𪝁, 𪝂, 𪝃, 𪝄, 𪝅, 𪝆, 𪝇, 𪝈, 𪝉, 𪝊, 𪝋, 𪝌, 𪝍, 𪝎, 𪝏, 𪝐, 𪝑, 𪝒, 𪝓, 𪝔, 𪝕, 𪝖, 𪝗, 𪝘, 𪝙, 𪝚, 𪝛, 𪝜, 𪝝, 𪝞, 𪝟, 𪝠, 𪝡, 𪝢, 𪝣, 𪝤, 𪝥, 𪝦, 𪝧, 𪝨, 𪝩, 𪝪, 𪝫, 𪝬, 𪝭, 𪝮, 𪝯, 𪝰, 𪝱, 𪝲, 𪝳, 𪝴, 𪝵, 𪝶, 𪝷, 𪝸, 𪝹, 𪝺, 𪝻, 𪝼, 𪝽, 𪝾, 𪝿, 𪞀, 𪞁, 𪞂, 𪞃, 𪞄, 𪞅, 𪞆, 𪞇, 𪞈, 𪞉, 𪞊, 𪞋, 𪞌, 𪞍, 𪞎, 𪞏, 𪞐, 𪞑, 𪞒, 𪞓, 𪞔, 𪞕, 𪞖, 𪞗, 𪞘, 𪞙, 𪞚, 𪞛, 𪞜, 𪞝, 𪞞, 𪞟, 𪞠, 𪞡, 𪞢, 𪞣, 𪞤, 𪞥, 𪞦, 𪞧, 𪞨, 𪞩, 𪞪, 𪞫, 𪞬, 𪞭, 𪞮, 𪞯, 𪞰, 𪞱, 𪞲, 𪞳, 𪞴, 𪞵, 𪞶, 𪞷, 𪞸, 𪞹, 𪞺, 𪞻, 𪞼, 𪞽, 𪞾, 𪞿, 𪟀, 𪟁, 𪟂, 𪟃, 𪟄, 𪟅, 𪟆, 𪟇, 𪟈, 𪟉, 𪟊, 𪟋, 𪟌, 𪟍, 𪟎, 𪟏, 𪟐, 𪟑, 𪟒, 𪟓, 𪟔, 𪟕, 𪟖, 𪟗, 𪟘, 𪟙, 𪟚, 𪟛, 𪟜, 𪟝, 𪟞, 𪟟, 𪟠, 𪟡, 𪟢, 𪟣, 𪟤, 𪟥, 𪟦, 𪟧, 𪟨, 𪟩, 𪟪, 𪟫, 𪟬, 𪟭, 𪟮, 𪟯, 𪟰, 𪟱, 𪟲, 𪟳, 𪟴, 𪟵, 𪟶, 𪟷, 𪟸, 𪟹, 𪟺, 𪟻, 𪟼, 𪟽, 𪟾, 𪟿, 𪠀, 𪠁, 𪠂, 𪠃, 𪠄, 𪠅, 𪠆, 𪠇, 𪠈, 𪠉, 𪠊, 𪠋, 𪠌, 𪠍, 𪠎, 𪠏, 𪠐, 𪠑, 𪠒, 𪠓, 𪠔, 𪠕, 𪠖, 𪠗, 𪠘, 𪠙, 𪠚, 𪠛, 𪠜, 𪠝, 𪠞, 𪠟, 𪠠, 𪠡, 𪠢, 𪠣, 𪠤, 𪠥, 𪠦, 𪠧, 𪠨, 𪠩, 𪠪, 𪠫, 𪠬, 𪠭, 𪠮, 𪠯, 𪠰, 𪠱, 𪠲, 𪠳, 𪠴, 𪠵, 𪠶, 𪠷, 𪠸, 𪠹, 𪠺, 𪠻, 𪠼, 𪠽, 𪠾, 𪠿, 𪡀, 𪡁, 𪡂, 𪡃, 𪡄, 𪡅, 𪡆, 𪡇, 𪡈, 𪡉, 𪡊, 𪡋, 𪡌, 𪡍, 𪡎, 𪡏, 𪡐, 𪡑, 𪡒, 𪡓, 𪡔, 𪡕, 𪡖, 𪡗, 𪡘, 𪡙, 𪡚, 𪡛, 𪡜, 𪡝, 𪡞, 𪡟, 𪡠, 𪡡, 𪡢, 𪡣, 𪡤, 𪡥, 𪡦, 𪡧, 𪡨, 𪡩, 𪡪, 𪡫, 𪡬, 𪡭, 𪡮, 𪡯, 𪡰, 𪡱, 𪡲, 𪡳, 𪡴, 𪡵, 𪡶, 𪡷, 𪡸, 𪡹, 𪡺, 𪡻, 𪡼, 𪡽, 𪡾, 𪡿, 𪢀, 𪢁, 𪢂, 𪢃, 𪢄, 𪢅, 𪢆, 𪢇, 𪢈, 𪢉, 𪢊, 𪢋, 𪢌, 𪢍, 𪢎, 𪢏, 𪢐, 𪢑, 𪢒, 𪢓, 𪢔, 𪢕, 𪢖, 𪢗, 𪢘, 𪢙, 𪢚, 𪢛, 𪢜, 𪢝, 𪢞, 𪢟, 𪢠, 𪢡, 𪢢, 𪢣, 𪢤, 𪢥, 𪢦, 𪢧, 𪢨, 𪢩, 𪢪, 𪢫, 𪢬, 𪢭, 𪢮, 𪢯, 𪢰, 𪢱, 𪢲, 𪢳, 𪢴, 𪢵, 𪢶, 𪢷, 𪢸, 𪢹, 𪢺, 𪢻, 𪢼, 𪢽, 𪢾, 𪢿, 𪣀, 𪣁, 𪣂, 𪣃, 𪣄, 𪣅, 𪣆, 𪣇, 𪣈, 𪣉, 𪣊, 𪣋, 𪣌, 𪣍, 𪣎, 𪣏, 𪣐, 𪣑, 𪣒, 𪣓, 𪣔, 𪣕, 𪣖, 𪣗, 𪣘, 𪣙, 𪣚, 𪣛, 𪣜, 𪣝, 𪣞, 𪣟, 𪣠, 𪣡, 𪣢, 𪣣, 𪣤, 𪣥, 𪣦, 𪣧, 𪣨, 𪣩, 𪣪, 𪣫, 𪣬, 𪣭, 𪣮, 𪣯, 𪣰, 𪣱, 𪣲, 𪣳, 𪣴, 𪣵, 𪣶, 𪣷, 𪣸, 𪣹, 𪣺, 𪣻, 𪣼, 𪣽, 𪣾, 𪣿, 𪤀, 𪤁, 𪤂, 𪤃, 𪤄, 𪤅, 𪤆, 𪤇, 𪤈, 𪤉, 𪤊, 𪤋, 𪤌, 𪤍, 𪤎, 𪤏, 𪤐, 𪤑, 𪤒, 𪤓, 𪤔, 𪤕, 𪤖, 𪤗, 𪤘, 𪤙, 𪤚, 𪤛, 𪤜, 𪤝, 𪤞, 𪤟, 𪤠, 𪤡, 𪤢, 𪤣, 𪤤, 𪤥, 𪤦, 𪤧, 𪤨, 𪤩, 𪤪, 𪤫, 𪤬, 𪤭, 𪤮, 𪤯, 𪤰, 𪤱, 𪤲, 𪤳, 𪤴, 𪤵, 𪤶, 𪤷, 𪤸, 𪤹, 𪤺, 𪤻, 𪤼, 𪤽, 𪤾, 𪤿, 𪥀, 𪥁, 𪥂, 𪥃, 𪥄, 𪥅, 𪥆, 𪥇, 𪥈, 𪥉, 𪥊, 𪥋, 𪥌, 𪥍, 𪥎, 𪥏, 𪥐, 𪥑, 𪥒, 𪥓, 𪥔, 𪥕, 𪥖, 𪥗, 𪥘, 𪥙, 𪥚, 𪥛, 𪥜, 𪥝, 𪥞, 𪥟, 𪥠, 𪥡, 𪥢, 𪥣, 𪥤, 𪥥, 𪥦, 𪥧, 𪥨, 𪥩, 𪥪, 𪥫, 𪥬, 𪥭, 𪥮, 𪥯, 𪥰, 𪥱, 𪥲, 𪥳, 𪥴, 𪥵, 𪥶, 𪥷, 𪥸, 𪥹, 𪥺, 𪥻, 𪥼, 𪥽, 𪥾, 𪥿, 𪦀, 𪦁, 𪦂, 𪦃, 𪦄, 𪦅, 𪦆, 𪦇, 𪦈, 𪦉, 𪦊, 𪦋, 𪦌, 𪦍, 𪦎, 𪦏, 𪦐, 𪦑, 𪦒, 𪦓, 𪦔, 𪦕, 𪦖, 𪦗, 𪦘, 𪦙, 𪦚, 𪦛, 𪦜, 𪦝, 𪦞, 𪦟, 𪦠, 𪦡, 𪦢, 𪦣, 𪦤, 𪦥, 𪦦, 𪦧, 𪦨, 𪦩, 𪦪, 𪦫, 𪦬, 𪦭, 𪦮, 𪦯, 𪦰, 𪦱, 𪦲, 𪦳, 𪦴, 𪦵, 𪦶, 𪦷, 𪦸, 𪦹, 𪦺, 𪦻, 𪦼, 𪦽, 𪦾, 𪦿, 𪧀, 𪧁, 𪧂, 𪧃, 𪧄, 𪧅, 𪧆, 𪧇, 𪧈, 𪧉, 𪧊, 𪧋, 𪧌, 𪧍, 𪧎, 𪧏, 𪧐, 𪧑, 𪧒, 𪧓, 𪧔, 𪧕, 𪧖, 𪧗, 𪧘, 𪧙, 𪧚, 𪧛, 𪧜, 𪧝, 𪧞, 𪧟, 𪧠, 𪧡, 𪧢, 𪧣, 𪧤, 𪧥, 𪧦, 𪧧, 𪧨, 𪧩, 𪧪, 𪧫, 𪧬, 𪧭, 𪧮, 𪧯, 𪧰, 𪧱, 𪧲, 𪧳, 𪧴, 𪧵, 𪧶, 𪧷, 𪧸, 𪧹, 𪧺, 𪧻, 𪧼, 𪧽, 𪧾, 𪧿, 𪨀, 𪨁, 𪨂, 𪨃, 𪨄, 𪨅, 𪨆, 𪨇, 𪨈, 𪨉, 𪨊, 𪨋, 𪨌, 𪨍, 𪨎, 𪨏, 𪨐, 𪨑, 𪨒, 𪨓, 𪨔, 𪨕, 𪨖, 𪨗, 𪨘, 𪨙, 𪨚, 𪨛, 𪨜, 𪨝, 𪨞, 𪨟, 𪨠, 𪨡, 𪨢, 𪨣, 𪨤, 𪨥, 𪨦, 𪨧, 𪨨, 𪨩, 𪨪, 𪨫, 𪨬, 𪨭, 𪨮, 𪨯, 𪨰, 𪨱, 𪨲, 𪨳, 𪨴, 𪨵, 𪨶, 𪨷, 𪨸, 𪨹, 𪨺, 𪨻, 𪨼, 𪨽, 𪨾, 𪨿, 𪩀, 𪩁, 𪩂, 𪩃, 𪩄, 𪩅, 𪩆, 𪩇, 𪩈, 𪩉, 𪩊, 𪩋, 𪩌, 𪩍, 𪩎, 𪩏, 𪩐, 𪩑, 𪩒, 𪩓, 𪩔, 𪩕, 𪩖, 𪩗, 𪩘, 𪩙, 𪩚, 𪩛, 𪩜, 𪩝, 𪩞, 𪩟, 𪩠, 𪩡, 𪩢, 𪩣, 𪩤, 𪩥, 𪩦, 𪩧, 𪩨, 𪩩, 𪩪, 𪩫, 𪩬, 𪩭, 𪩮, 𪩯, 𪩰, 𪩱, 𪩲, 𪩳, 𪩴, 𪩵, 𪩶, 𪩷, 𪩸, 𪩹, 𪩺, 𪩻, 𪩼, 𪩽, 𪩾, 𪩿, 𪪀, 𪪁, 𪪂, 𪪃, 𪪄, 𪪅, 𪪆, 𪪇, 𪪈, 𪪉, 𪪊, 𪪋, 𪪌, 𪪍, 𪪎, 𪪏, 𪪐, 𪪑, 𪪒, 𪪓, 𪪔, 𪪕, 𪪖, 𪪗, 𪪘, 𪪙, 𪪚, 𪪛, 𪪜, 𪪝, 𪪞, 𪪟, 𪪠, 𪪡, 𪪢, 𪪣, 𪪤, 𪪥, 𪪦, 𪪧, 𪪨, 𪪩, 𪪪, 𪪫, 𪪬, 𪪭, 𪪮, 𪪯, 𪪰, 𪪱, 𪪲, 𪪳, 𪪴, 𪪵, 𪪶, 𪪷, 𪪸, 𪪹, 𪪺, 𪪻, 𪪼, 𪪽, 𪪾, 𪪿, 𪫀, 𪫁, 𪫂, 𪫃, 𪫄, 𪫅, 𪫆, 𪫇, 𪫈, 𪫉, 𪫊, 𪫋, 𪫌, 𪫍, 𪫎, 𪫏, 𪫐, 𪫑, 𪫒, 𪫓, 𪫔, 𪫕, 𪫖, 𪫗, 𪫘, 𪫙, 𪫚, 𪫛, 𪫜, 𪫝, 𪫞, 𪫟, 𪫠, 𪫡, 𪫢, 𪫣, 𪫤, 𪫥, 𪫦, 𪫧, 𪫨, 𪫩, 𪫪, 𪫫, 𪫬, 𪫭, 𪫮, 𪫯, 𪫰, 𪫱, 𪫲, 𪫳, 𪫴, 𪫵, 𪫶, 𪫷, 𪫸, 𪫹, 𪫺, 𪫻, 𪫼, 𪫽, 𪫾, 𪫿, 𪬀, 𪬁, 𪬂, 𪬃, 𪬄, 𪬅, 𪬆, 𪬇, 𪬈, 𪬉, 𪬊, 𪬋, 𪬌, 𪬍, 𪬎, 𪬏, 𪬐, 𪬑, 𪬒, 𪬓, 𪬔, 𪬕, 𪬖, 𪬗, 𪬘, 𪬙, 𪬚, 𪬛, 𪬜, 𪬝, 𪬞, 𪬟, 𪬠, 𪬡, 𪬢, 𪬣, 𪬤, 𪬥, 𪬦, 𪬧, 𪬨, 𪬩, 𪬪, 𪬫, 𪬬, 𪬭, 𪬮, 𪬯, 𪬰, 𪬱, 𪬲, 𪬳, 𪬴, 𪬵, 𪬶, 𪬷, 𪬸, 𪬹, 𪬺, 𪬻, 𪬼, 𪬽, 𪬾, 𪬿, 𪭀, 𪭁, 𪭂, 𪭃, 𪭄, 𪭅, 𪭆, 𪭇, 𪭈, 𪭉, 𪭊, 𪭋, 𪭌, 𪭍, 𪭎, 𪭏, 𪭐, 𪭑, 𪭒, 𪭓, 𪭔, 𪭕, 𪭖, 𪭗, 𪭘, 𪭙, 𪭚

(4가)의 ‘구결 이두 합자’란 용어는 남풍현(1989)에서 가져온 것임을 앞에서 설명하였다. 鮎貝房之進(1931)은 假借造字, 홍기문(1957)은 ‘표음하는 자’, 박성중(2005:67)은 ‘표음 국조자’로 부르고 있다. 이 유형에 속하는 글자의 字形 상 고유성은 의심할 바 없다. 고유어 종성 ‘ㄴ, ㄹ, ㅅ’ 등을 표기하기 위하여 차차 표기에 사용된 ‘ㄱ, 乙, ㄷ’ 등이 사용되었으나 고유어 종성 ‘ㄱ, ㅁ’을 표기하기 위하여 한글 자모 ‘ㄱ, ㅁ’이 사용된 것이 이채롭다. 畵과 𠂔에서 보는 것처럼 경음을 표기하기 위한 ㄷ이 分의 아래 공간과 위 공간에 표기된 점도 이채롭다.

(4나)의 합자는 두 글자가 하나의 글자를 형성한 것이다. 예컨대 梁의 경우 신라의 관직명인 乃末의 두 글자가 합자되어 형성된 자형이다. 鮎貝房之進(1931)과 남풍현(1989)에서 ‘합자’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 유형에 속하는 글자의 字形 상 고유성은 의심할 바 없다.

(4다)의 속자와 (4라)의 동자는 () 속에 제시한 정자의 이체자이다. 이 유형에 속하는 한자를 『한국한자어사전』(1996)에서는 國字로 규정하였으나 다른 연구에서는 일부 한자의 경우에만 國字로 규정하였다. 즉 畵의 경우 鮎貝房之進(1931), 김종훈(1983) 등도 字形 상 고유성을 인정하여 속자 또는 國字라 규정하였고, 𠂔의 경우 김종훈(1983)도 국자라 규정하였고,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등의 경우에는 鮎貝房之進(1931)에서도 속자로 규정하였을 뿐이다.

(4다)와 (4라)에 속한 글자들을 字形 상 한국 고유성을 가진 것으로 규정한 것은 이 자형들이 중국 역대 자서나 운서에 수록되지 않은 것에 근거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이러한 근거만으로는 (4다)와 (4라)에 속한 글자들이 字形 상 한국 고유성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충분치 않다. (4다)와 (4라)에 속한 글자들이 중국에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4다)의 𠂔를 들 수 있다. 『한국한자어사전』(1996)에 따르면 𠂔는 『東國正韻』과 『鄉藥救急方』에 사용된 것이다.<sup>6)</sup> 그런데 대만의 『異體字字典』(<http://dict2.variants.moe.edu.tw>)에서는 𠂔가 「後晉聖字山嵒峒巖記」에 사용<sup>7)</sup>되었음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𠂔는 字形 상 한국 고유성을 가진 글자가 아닐 가능성도 있다. 결국 (4다)와 (4라)에 속한 자형들은 字形 상 한국 고유성을 가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4마)의 약자 ‘畵, 畵, 畵, 畵’ 등은 정자 ‘幕, 幕, 錢, 畵’ 등의 일부를 생략한 것이다. 생략자와 정자의 관계는 중국 문헌에서 현재 발견할 수 없는 것이긴 하지만 앞으로 발견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4바)의 구결자 ‘ㅅ, ㅅ, ㅅ’ 등도 정자 ‘羅, 隱, 隱’ 등의 일부를 생략한 것이다. 구결자의 경우 자형 상 고유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4사)의 악보 기호 중 ‘ム, ㄴ, ㄴ, ㄴ, ㄴ, ㄴ, ㄴ, ㄴ’ 등은 『악학궤범』에서 설명된 것이고, ㄴ은 『林園十六志』, 遊藝志 6, 房中樂譜에서 설명된 것이다. 이들은 중국의 역대 자서나 운서에 수록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악보 기호가 한국에서 만들어졌다는 증거는 현재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 악보 기호들 중 일부는 오히려 중국 문헌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논하기로 한다.

(4아)의 한자들은 『韓國漢字語辭典』(1996)에서 중국의 역대 자서나 운서에 수록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國

6) 『韓國漢字語辭典』, 畵, “國字. 畵의 속자. 『東國正韻』 6, 26 予(又居韻)·畵(上同). 『鄉藥救急方』 中, 19 膽, 鄉名畵老.”

7) 『異體字字典』, “《金石文字辨異. 上聲. 語韻. 与字》引〈後晉聖字山嵒峒巖記〉”



- 151 -

자형 상 한국 고유성이 명백하다.

(6라)의 경우는 字形 상 고유성의 증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襌에 대해서는 이미 이견식(2012:196)에서 형성의 방식으로 자형이 형성된 근거를 제시하였다.

(6라)의 繻 자형이 한국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을 열어 주는 근거가 있다.

- (7) 가. 子藩復相, 繻縫調護, 欲使王父子, 慈孝如初 〈高麗史 105, 洪子藩傳〉  
나. 繻縫 분규를 중재함. 알선함. 〈漢韓大辭典〉

(7가)의 繻縫調護에서 調護는 ‘조정하고 보호하다’의 뜻이다. 뒤의 문맥을 고려할 때, 이것의 대상은 왕의 부자 관계가 된다. 繻縫는 調護의 의미를 한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조정하고 보호하다’를 한정하는 (7나)의 뜻이 적절하다. 이것은 繻縫이 (7나)의 繻縫에서 발달했을 것임을 암시한다. 따라서 繻는 彌에다 意符 糸를 추가한 형성자가 된다. 繻縫는 한어나 繻縫는 우리 문헌에서만 발견된다는 점에서 繻는 한국에서 형성된 형성자일 가능성이 높다.

(6라) 𧈧의 경우에는 형성의 방식으로 자형이 형성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 (8) 가. 小人伏蒙下恤之澤, 將老無𧈧, 伏幸何達 〈儒胥必知, 告目, 吏輩歲時間安告目〉  
나. 將老無恙 〈일성록 1822년(순조 22) 7월 17일〉  
다. 將老無恙 〈公車文(19世紀) 권77, 初廣州留守 李書九 上疏〉  
라. 무양-하다01(無恙-), 몸에 병이나 탈이 없다. 〈표준국어대사전〉

『韓國漢字語辭典』에서는 (8가)의 𧈧의 뜻을 ‘병, 탈’로 풀이하고 있다. 그런데 (8나)와 (8다)와 같이 將老無恙이 발견되어 주목된다. 將老無恙의 無恙은 (8라)의 의미로 이해된다. 따라서 (8가)의 無恙과 (8나), (8다)의 無恙은 동일한 의미를 지칭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결국 𧈧이 恙에다 意符 虫을 첨가하여 형성된 자형임을 말하는 것이다. 𧈧은 한국에서 발생한 자형으로 생각된다.

(6마)의 𧈧이 한자인 근거가 있다.

- (9) 가. 𧈧拏𧈧(名庚切)賀之一十萬偈, 復興於身篤 〈大華嚴首座圓通兩重大師均如傳并序〉  
나. 答 若舊梵云摩訶毗佛略勃陀健拏𧈧阿欲底修多羅 此訛略也 若就正者 應云摩訶尾沒里也(里也反) 沒駄𧈧拏𧈧(名庚反)賀素怛[口覽](二合) 摩訶云大 尾沒里也云方廣 沒駄云覺者 𧈧拏云雜華 𧈧賀云嚴飾 素怛 素怛𧈧云契經 〈宗密(780~840) 大方廣佛華嚴經普賢行願品別行疏鈔 語譯 卷 1〉<sup>8)</sup>

(9가)의 자료를 근거로 『韓國漢字語辭典』에서 𧈧를 國字로 규정했으나 (9나)의 중국 문헌 자료를 고려할

8) 이 자료는 <http://tclotus.net/tcbl/ppmove/read.wajung/f/07/pdf/03.pdf>에서 가져온 것이다.

때, 𩇛는 한자가 된다. (9가)의 𩇛拏𩇛賀는 gandavyūha를 음역한 것이다(최철·안대회, 1986:26). (9나)에 서는 𩇛拏를 한어 雜華로 풀이하였고, 𩇛賀를 한어 嚴飾으로 풀이하였다. 이로 보아 𩇛는 한자가 된다.

(6바)는 한자의 정자에 대한 이체자이다. 이러한 이체자가 한국 고유의 특성을 담고 있는지를 정밀하게 논 의할 필요가 있다. 한국 문헌에 이러한 이체자가 나타난다는 이유만으로 字形 상 한국 고유의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에는 무리가 따른다. 이러한 실례로 앞에서 與의 이체자인 (6바) 𩇛가 중국 문헌에도 사 용되었음을 언급하였다.

(6사) 악보 기호는 『韓國漢字語辭典』에서만 國字라 하여 자형 상 한국 고유의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 했으나 중국에서 기원했을 가능성이 있다. 『韓國漢字語辭典』은 9개의 악보 기호를 國字로 처리했고, 15개의 악보 기호를 國義字로 처리했다. 이들은 대체로 『악학궤범』에 소개된 것이다. 그런데 일부의 악보 기호는 宋 代 자료인 『事林廣記』에 나오는 것과 일치한다.

(10) 가. 無名指作夕〈樂學軌範, 권7, 鄉部樂器圖說, 玄琴〉

나. 夕 名指也〈新編群書類要事林廣記, 권4, 左手字譜〉

(11) 가. 仲宮爲上字, 俗作么〈樂學軌範, 권1, 十二律配俗呼〉

나. 仲呂 巳月 么〈新編群書類要事林廣記 권9, 樂星圖譜 律呂隔八相生圖〉

(12) 가. 黃鍾全聲, 爲合字, 俗作厶〈樂學軌範, 권1, 十二律配俗呼〉

나. 黃鍾 子月 厶〈新編群書類要事林廣記, 권9, 樂星圖譜 律呂隔八相生圖〉

『한한대사전』에서 名指를 약손가락 곧 無名指로 풀이하고 있다. 따라서 (10가) 악보 기호 夕과 (10나)의 夕는 형태도 동일하며 의미도 동일한 것임을 알 수 있다. (11가)의 仲宮은 仲呂宮의 줄임말로 12울 중에서 여섯째 울명을 가리킨다.<sup>9)</sup> (11나)에서 仲呂를 巳月로 풀이했다. 巳月은 天干地支에서 여섯 번째 달이다. 따 라서 (11가)의 仲宮과 (11나)의 仲呂는 같은 의미를 가진다. 결국 (11가)의 么와 (11나)의 么는 자형도 동일 하고 의미도 동일한 것이 된다. (12가) 黃鍾은 12울의 첫째울을 가리킨다.<sup>10)</sup> (12가)에서는 黃鍾을 子月로 풀이했다. 따라서 (12가)와 (12나)의 黃鍾은 같은 말이다. 결국 (12가)와 (12나)의 厶는 동일한 기원을 가진 것이다. 결국 『韓國漢字語辭典』에서 夕는 국의자로 么와 厶는 國字로 했으나 이는 잘못된 것이다.

(6아)의 성씨명의 한자 𩇛, 인명의 한자 𩇛, 𩇛, 𩇛, 𩇛, 지명의 한자 𩇛, 𩇛, 𩇛, 𩇛 등은 字形 상 한국 고유의 특성을 가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데 개념어 및 물명에 속한 한자의 경우 字形 상 고유 성을 입증하는 근거가 제시될 필요가 있다.

(6아)의 개념어 및 물명에 속한 한자 중 𩇛과 𩇛의 경우는 字形 상 고유성을 입증하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먼저 𩇛를 검토하도록 한다.

9) 宋芳松(2010:322)의 설명을 참조할 수 있다.

10) 宋芳松(2010:414)의 설명을 참조할 수 있다.

- (13) 가. 五頭品女……梢・襠, 禁闕繡錦・野草羅・布紡羅・金銀泥纈纈 〈三國史記 33, 色服志〉  
 나. 纈纈 문양을 도려낸 얇은 판자 두 장 사이에 천을 단단히 물리고 그 도려낸 부분에만 염료나 拔染劑를 칠하여 무늬를 올리는 방법이다. (중략) 纈纈은 당대에 이미 행하여진 방법으로 신라에서는 梢襠, 短衣, 表裳, 內裳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6두품 여자까지 이러한 무늬를 낸 비단으로 옷을 입을 수 있었다. <정구복 외(2012), 120-121〉  
 다. 【三纈】 縹纈(ろうけち)・夾纈(きようけち)・纈纈(こうけち) の總稱 <大辭林 第三版〉  
 라. 古時唐三纈即是「縹纈、絞纈、縹纈」都是植物染 <黃喜玫 2003:第一章緒論〉

纈纈에 대한 (13나)의 설명은 纈纈가 (13다)의 夾纈과 (13라)의 縹纈과 동일한 명칭임을 알려 준다. 따라서 纈纈은 縹纈에서 발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결국 纈은 형성에 의하여 자형이 형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우리 문헌인 『삼국사기』에서만 纈이 발견된다는 점에서 纈이 字形 상 한국 고유성을 가질 가능성이 높으나 자세치 않다.

다음에는 馳을 검토하도록 한다.

- (14) 가. 退一步, 作馳劒勢 <武藝圖譜通志, 권1, 長槍〉  
 나. 흔 거룻 물너가 엄검세를 흐고 <武藝圖譜通志診解, 長槍後譜〉  
 다. 1. 夜叉探海, 2. 四夷賓服中平槍, 3. 指南針勢(上平槍), 4. 十面埋伏下平槍, 5. 靑龍獻爪勢, 6. 遑欄勢, 7. 鉄幡竿勢, 8. 跨劍勢, 9. 鋪地錦勢, 10. 朝天勢, 11. 鐵牛耕地勢, 12. 滴水勢, 13. 騎龍勢, 14. 白猿拖刀勢, 15. 琵琶勢, 16. 靈貓捉鼠勢, 17. 泰山壓卵勢, 18. 美人認針勢, 19. 蒼龍擺尾勢, 20. 闖鴻門勢, 21. 伏虎勢, 22. 推山塞海勢, 23. 鴿子撲鴨鵝勢, 24. 太公釣魚勢 <戚繼光 紀效新書 二十四槍勢〉  
 라. 跨劍勢 乃裙欄槍法 大開門戶, 誘他來逐 我中途掣剝 他虛我實搖花槍 我實他虛棚退剝 <戚繼光 紀效新書 二十四槍勢〉

(14가)가 馳의 유일한 용례이다. (14나)는 馳의 음이 ‘엄’임을 보여 준다. (14다)의 자료는 馳이 한국 고유의 것임을 말하여 준다. (14가)의 馳劒勢가 (14다)의 跨劍勢에 정확하게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예도보통지』의 長槍 조에 24개의 劒勢가 제시되었는데, 23개의 劒勢 명칭이 (14다)의 劒勢 명칭과 일치하고, 馳劒勢만은 (14다)에 없다. 이것은 馳劒勢가 跨劍勢와 일치되는 것임을 말하여 준다.

跨劍勢<sup>11)</sup>를 얼른 해석하면 ‘칼을 걸터 앉는 검세’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金山(2008:148-149)에서 馳劒勢와 跨劍勢를 설명하면서 이들이 ‘기마자세’를 취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跨劍勢는 跨(馬之)劒勢의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결국 跨馬는 ‘기마자세’를 말하는 것이므로 馳의 의미도 ‘기마자세’인 것으로 추정된다. 奄이 ‘가리다’의 뜻이므로 馳의 의미를 ‘말을 걸터 타는 자세’, 즉 ‘기마자세’로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추정에서는 馳은 회의자가 된다.

11) 跨劍勢를 ‘칼을 걸터 앉는 검세’로 파악했으나 어떤 심사자가 ‘말을 걸터 타는 자세’로 파악해야 함을 지적해 주었다. 심사자의 견해를 따르며 좋은 지적을 해주신 심사자에게 감사드린다.

## (2) 누락 목록

鮎貝房之進(1931)과 김종훈(1983)에서 속자 또는 國字로 제시했으나 『韓國漢字語辭典』(1996)에서 누락된 것은 다음과 같다.

- (15) 가. 蓑, 董, 柞, 披, 檳, 磚, 衲, 孤, 边, 下, 楔, 岁, 柵, 稜, 远, 狍, 豸, 玉, 少/土, 王/王王,  
 正[윗집], 人天, 嘖, 硯, 炱, 奈, 絲木絲/金  
 나. 嚮, 𪛗, 𪛘, 𪛙, 𪛚, 𪛛, 𪛜, 𪛝, 𪛞, 𪛟,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𪜀, 𪜁, 𪜂, 𪜃, 𪜄, 𪜅, 𪜆, 𪜇, 𪜈, 𪜉, 𪜊, 𪜋, 𪜌, 𪜍, 𪜎, 𪜏, 𪜐, 𪜑, 𪜒, 𪜓, 𪜔, 𪜕, 𪜖, 𪜗, 𪜘, 𪜙, 𪜚, 𪜛, 𪜜, 𪜝, 𪜞, 𪜟, 𪜠, 𪜡, 𪜢, 𪜣, 𪜤, 𪜥, 𪜦, 𪜧, 𪜨, 𪜩, 𪜪, 𪜫, 𪜬, 𪜭, 𪜮, 𪜯, 𪜰, 𪜱, 𪜲, 𪜳, 𪜴, 𪜵, 𪜶, 𪜷, 𪜸, 𪜹, 𪜺, 𪜻, 𪜼, 𪜽, 𪜾, 𪜿, 𪝀, 𪝁, 𪝂, 𪝃, 𪝄, 𪝅, 𪝆, 𪝇, 𪝈, 𪝉, 𪝊, 𪝋, 𪝌, 𪝍, 𪝎, 𪝏, 𪝐, 𪝑, 𪝒, 𪝓, 𪝔, 𪝕, 𪝖, 𪝗, 𪝘, 𪝙, 𪝚, 𪝛, 𪝜, 𪝝, 𪝞, 𪝟, 𪝠, 𪝡, 𪝢, 𪝣, 𪝤, 𪝥, 𪝦, 𪝧, 𪝨, 𪝩, 𪝪, 𪝫, 𪝬, 𪝭, 𪝮, 𪝯, 𪝰, 𪝱, 𪝲, 𪝳, 𪝴, 𪝵, 𪝶, 𪝷, 𪝸, 𪝹, 𪝺, 𪝻, 𪝼, 𪝽, 𪝾, 𪝿, 𪞀, 𪞁, 𪞂, 𪞃, 𪞄, 𪞅, 𪞆, 𪞇, 𪞈, 𪞉, 𪞊, 𪞋, 𪞌, 𪞍, 𪞎, 𪞏, 𪞐, 𪞑, 𪞒, 𪞓, 𪞔, 𪞕, 𪞖, 𪞗, 𪞘, 𪞙, 𪞚, 𪞛, 𪞜, 𪞝, 𪞞, 𪞟, 𪞠, 𪞡, 𪞢, 𪞣, 𪞤, 𪞥, 𪞦, 𪞧, 𪞨, 𪞩, 𪞪, 𪞫, 𪞬, 𪞭, 𪞮, 𪞯, 𪞰, 𪞱, 𪞲, 𪞳, 𪞴, 𪞵, 𪞶, 𪞷, 𪞸, 𪞹, 𪞺, 𪞻, 𪞼, 𪞽, 𪞾, 𪞿, 𪟀, 𪟁, 𪟂, 𪟃, 𪟄, 𪟅, 𪟆, 𪟇, 𪟈, 𪟉, 𪟊, 𪟋, 𪟌, 𪟍, 𪟎, 𪟏, 𪟐, 𪟑, 𪟒, 𪟓, 𪟔, 𪟕, 𪟖, 𪟗, 𪟘, 𪟙, 𪟚, 𪟛, 𪟜, 𪟝, 𪟞, 𪟟, 𪟠, 𪟡, 𪟢, 𪟣, 𪟤, 𪟥, 𪟦, 𪟧, 𪟨, 𪟩, 𪟪, 𪟫, 𪟬, 𪟭, 𪟮, 𪟯, 𪟰, 𪟱, 𪟲, 𪟳, 𪟴, 𪟵, 𪟶, 𪟷, 𪟸, 𪟹, 𪟺, 𪟻, 𪟼, 𪟽, 𪟾, 𪟿, 𪠀, 𪠁, 𪠂, 𪠃, 𪠄, 𪠅, 𪠆, 𪠇, 𪠈, 𪠉, 𪠊, 𪠋, 𪠌, 𪠍, 𪠎, 𪠏, 𪠐, 𪠑, 𪠒, 𪠓, 𪠔, 𪠕, 𪠖, 𪠗, 𪠘, 𪠙, 𪠚, 𪠛, 𪠜, 𪠝, 𪠞, 𪠟, 𪠠, 𪠡, 𪠢, 𪠣, 𪠤, 𪠥, 𪠦, 𪠧, 𪠨, 𪠩, 𪠪, 𪠫, 𪠬, 𪠭, 𪠮, 𪠯, 𪠰, 𪠱, 𪠲, 𪠳, 𪠴, 𪠵, 𪠶, 𪠷, 𪠸, 𪠹, 𪠺, 𪠻, 𪠼, 𪠽, 𪠾, 𪠿, 𪡀, 𪡁, 𪡂, 𪡃, 𪡄, 𪡅, 𪡆, 𪡇, 𪡈, 𪡉, 𪡊, 𪡋, 𪡌, 𪡍, 𪡎, 𪡏, 𪡐, 𪡑, 𪡒, 𪡓, 𪡔, 𪡕, 𪡖, 𪡗, 𪡘, 𪡙, 𪡚, 𪡛, 𪡜, 𪡝, 𪡞, 𪡟, 𪡠, 𪡡, 𪡢, 𪡣, 𪡤, 𪡥, 𪡦, 𪡧, 𪡨, 𪡩, 𪡪, 𪡫, 𪡬, 𪡭, 𪡮, 𪡯, 𪡰, 𪡱, 𪡲, 𪡳, 𪡴, 𪡵, 𪡶, 𪡷, 𪡸, 𪡹, 𪡺, 𪡻, 𪡼, 𪡽, 𪡾, 𪡿, 𪢀, 𪢁, 𪢂, 𪢃, 𪢄, 𪢅, 𪢆, 𪢇, 𪢈, 𪢉, 𪢊, 𪢋, 𪢌, 𪢍, 𪢎, 𪢏, 𪢐, 𪢑, 𪢒, 𪢓, 𪢔, 𪢕, 𪢖, 𪢗, 𪢘, 𪢙, 𪢚, 𪢛, 𪢜, 𪢝, 𪢞, 𪢟, 𪢠, 𪢡, 𪢢, 𪢣, 𪢤, 𪢥, 𪢦, 𪢧, 𪢨, 𪢩, 𪢪, 𪢫, 𪢬, 𪢭, 𪢮, 𪢯, 𪢰, 𪢱, 𪢲, 𪢳, 𪢴, 𪢵, 𪢶, 𪢷, 𪢸, 𪢹, 𪢺, 𪢻, 𪢼, 𪢽, 𪢾, 𪢿, 𪣀, 𪣁, 𪣂, 𪣃, 𪣄, 𪣅, 𪣆, 𪣇, 𪣈, 𪣉, 𪣊, 𪣋, 𪣌, 𪣍, 𪣎, 𪣏, 𪣐, 𪣑, 𪣒, 𪣓, 𪣔, 𪣕, 𪣖, 𪣗, 𪣘, 𪣙, 𪣚, 𪣛, 𪣜, 𪣝, 𪣞, 𪣟, 𪣠, 𪣡, 𪣢, 𪣣, 𪣤, 𪣥, 𪣦, 𪣧, 𪣨, 𪣩, 𪣪, 𪣫, 𪣬, 𪣭, 𪣮, 𪣯, 𪣰, 𪣱, 𪣲, 𪣳, 𪣴, 𪣵, 𪣶, 𪣷, 𪣸, 𪣹, 𪣺, 𪣻, 𪣼, 𪣽, 𪣾, 𪣿, 𪤀, 𪤁, 𪤂, 𪤃, 𪤄, 𪤅, 𪤆, 𪤇, 𪤈, 𪤉, 𪤊, 𪤋, 𪤌, 𪤍, 𪤎, 𪤏, 𪤐, 𪤑, 𪤒, 𪤓, 𪤔, 𪤕, 𪤖, 𪤗, 𪤘, 𪤙, 𪤚, 𪤛, 𪤜, 𪤝, 𪤞, 𪤟, 𪤠, 𪤡, 𪤢, 𪤣, 𪤤, 𪤥, 𪤦, 𪤧, 𪤨, 𪤩, 𪤪, 𪤫, 𪤬, 𪤭, 𪤮, 𪤯, 𪤰, 𪤱, 𪤲, 𪤳, 𪤴, 𪤵, 𪤶, 𪤷, 𪤸, 𪤹, 𪤺, 𪤻, 𪤼, 𪤽, 𪤾, 𪤿, 𪥀, 𪥁, 𪥂, 𪥃, 𪥄, 𪥅, 𪥆, 𪥇, 𪥈, 𪥉, 𪥊, 𪥋, 𪥌, 𪥍, 𪥎, 𪥏, 𪥐, 𪥑, 𪥒, 𪥓, 𪥔, 𪥕, 𪥖, 𪥗, 𪥘, 𪥙, 𪥚, 𪥛, 𪥜, 𪥝, 𪥞, 𪥟, 𪥠, 𪥡, 𪥢, 𪥣, 𪥤, 𪥥, 𪥦, 𪥧, 𪥨, 𪥩, 𪥪, 𪥫, 𪥬, 𪥭, 𪥮, 𪥯, 𪥰, 𪥱, 𪥲, 𪥳, 𪥴, 𪥵, 𪥶, 𪥷, 𪥸, 𪥹, 𪥺, 𪥻, 𪥼, 𪥽, 𪥾, 𪥿, 𪦀, 𪦁, 𪦂, 𪦃, 𪦄, 𪦅, 𪦆, 𪦇, 𪦈, 𪦉, 𪦊, 𪦋, 𪦌, 𪦍, 𪦎, 𪦏, 𪦐, 𪦑, 𪦒, 𪦓, 𪦔, 𪦕, 𪦖, 𪦗, 𪦘, 𪦙, 𪦚, 𪦛, 𪦜, 𪦝, 𪦞, 𪦟, 𪦠, 𪦡, 𪦢, 𪦣, 𪦤, 𪦥, 𪦦, 𪦧, 𪦨, 𪦩, 𪦪, 𪦫, 𪦬, 𪦭, 𪦮, 𪦯, 𪦰, 𪦱, 𪦲, 𪦳, 𪦴, 𪦵, 𪦶, 𪦷, 𪦸, 𪦹, 𪦺, 𪦻, 𪦼, 𪦽, 𪦾, 𪦿, 𪧀, 𪧁, 𪧂, 𪧃, 𪧄, 𪧅, 𪧆, 𪧇, 𪧈, 𪧉, 𪧊, 𪧋, 𪧌, 𪧍, 𪧎, 𪧏, 𪧐, 𪧑, 𪧒, 𪧓, 𪧔, 𪧕, 𪧖, 𪧗, 𪧘, 𪧙, 𪧚, 𪧛, 𪧜, 𪧝, 𪧞, 𪧟, 𪧠, 𪧡, 𪧢, 𪧣, 𪧤, 𪧥, 𪧦, 𪧧, 𪧨, 𪧩, 𪧪, 𪧫, 𪧬, 𪧭, 𪧮, 𪧯, 𪧰, 𪧱, 𪧲, 𪧳, 𪧴, 𪧵, 𪧶, 𪧷, 𪧸, 𪧹, 𪧺, 𪧻, 𪧼, 𪧽, 𪧾, 𪧿, 𪨀, 𪨁, 𪨂, 𪨃, 𪨄, 𪨅, 𪨆, 𪨇, 𪨈, 𪨉, 𪨊, 𪨋, 𪨌, 𪨍, 𪨎, 𪨏, 𪨐, 𪨑, 𪨒, 𪨓, 𪨔, 𪨕, 𪨖, 𪨗, 𪨘, 𪨙, 𪨚, 𪨛, 𪨜, 𪨝, 𪨞, 𪨟, 𪨠, 𪨡, 𪨢, 𪨣, 𪨤, 𪨥, 𪨦, 𪨧, 𪨨, 𪨩, 𪨪, 𪨫, 𪨬, 𪨭, 𪨮, 𪨯, 𪨰, 𪨱, 𪨲, 𪨳, 𪨴, 𪨵, 𪨶, 𪨷, 𪨸, 𪨹, 𪨺, 𪨻, 𪨼, 𪨽, 𪨾, 𪨿, 𪩀, 𪩁, 𪩂, 𪩃, 𪩄, 𪩅, 𪩆, 𪩇, 𪩈, 𪩉, 𪩊, 𪩋, 𪩌, 𪩍, 𪩎, 𪩏, 𪩐, 𪩑, 𪩒, 𪩓, 𪩔, 𪩕, 𪩖, 𪩗, 𪩘, 𪩙, 𪩚, 𪩛, 𪩜, 𪩝, 𪩞, 𪩟, 𪩠, 𪩡, 𪩢, 𪩣, 𪩤, 𪩥, 𪩦, 𪩧, 𪩨, 𪩩, 𪩪, 𪩫, 𪩬, 𪩭, 𪩮, 𪩯, 𪩰, 𪩱, 𪩲, 𪩳, 𪩴, 𪩵, 𪩶, 𪩷, 𪩸, 𪩹, 𪩺, 𪩻, 𪩼, 𪩽, 𪩾, 𪩿, 𪪀, 𪪁, 𪪂, 𪪃, 𪪄, 𪪅, 𪪆, 𪪇, 𪪈, 𪪉, 𪪊, 𪪋, 𪪌, 𪪍, 𪪎, 𪪏, 𪪐, 𪪑, 𪪒, 𪪓, 𪪔, 𪪕, 𪪖, 𪪗, 𪪘, 𪪙, 𪪚, 𪪛, 𪪜, 𪪝, 𪪞, 𪪟, 𪪠, 𪪡, 𪪢, 𪪣, 𪪤, 𪪥, 𪪦, 𪪧, 𪪨, 𪪩, 𪪪, 𪪫, 𪪬, 𪪭, 𪪮, 𪪯, 𪪰, 𪪱, 𪪲, 𪪳, 𪪴, 𪪵, 𪪶, 𪪷, 𪪸, 𪪹, 𪪺, 𪪻, 𪪼, 𪪽, 𪪾, 𪪿, 𪫀, 𪫁, 𪫂, 𪫃, 𪫄, 𪫅, 𪫆, 𪫇, 𪫈, 𪫉, 𪫊, 𪫋, 𪫌, 𪫍, 𪫎, 𪫏, 𪫐, 𪫑, 𪫒, 𪫓, 𪫔, 𪫕, 𪫖, 𪫗, 𪫘, 𪫙, 𪫚, 𪫛, 𪫜, 𪫝, 𪫞, 𪫟, 𪫠, 𪫡, 𪫢, 𪫣, 𪫤, 𪫥, 𪫦, 𪫧, 𪫨, 𪫩, 𪫪, 𪫫, 𪫬, 𪫭, 𪫮, 𪫯, 𪫰, 𪫱, 𪫲, 𪫳, 𪫴, 𪫵, 𪫶, 𪫷, 𪫸, 𪫹, 𪫺, 𪫻, 𪫼, 𪫽, 𪫾, 𪫿, 𪬀, 𪬁, 𪬂, 𪬃, 𪬄, 𪬅, 𪬆, 𪬇, 𪬈, 𪬉, 𪬊, 𪬋, 𪬌, 𪬍, 𪬎, 𪬏, 𪬐, 𪬑, 𪬒, 𪬓, 𪬔, 𪬕, 𪬖, 𪬗, 𪬘, 𪬙, 𪬚, 𪬛, 𪬜, 𪬝, 𪬞, 𪬟, 𪬠, 𪬡, 𪬢, 𪬣, 𪬤, 𪬥, 𪬦, 𪬧, 𪬨, 𪬩, 𪬪, 𪬫, 𪬬, 𪬭, 𪬮, 𪬯, 𪬰, 𪬱, 𪬲, 𪬳, 𪬴, 𪬵, 𪬶, 𪬷, 𪬸, 𪬹, 𪬺, 𪬻, 𪬼, 𪬽, 𪬾, 𪬿, 𪭀, 𪭁, 𪭂, 𪭃, 𪭄, 𪭅, 𪭆, 𪭇, 𪭈, 𪭉, 𪭊, 𪭋, 𪭌, 𪭍, 𪭎, 𪭏, 𪭐, 𪭑, 𪭒, 𪭓, 𪭔, 𪭕, 𪭖, 𪭗, 𪭘, 𪭙, 𪭚, 𪭛, 𪭜, 𪭝, 𪭞, 𪭟, 𪭠, 𪭡, 𪭢, 𪭣, 𪭤, 𪭥, 𪭦, 𪭧, 𪭨, 𪭩, 𪭪, 𪭫, 𪭬, 𪭭, 𪭮, 𪭯, 𪭰, 𪭱, 𪭲, 𪭳, 𪭴, 𪭵, 𪭶, 𪭷, 𪭸, 𪭹, 𪭺, 𪭻, 𪭼, 𪭽, 𪭾, 𪭿, 𪮀, 𪮁, 𪮂, 𪮃, 𪮄, 𪮅, 𪮆, 𪮇, 𪮈, 𪮉, 𪮊, 𪮋, 𪮌, 𪮍, 𪮎, 𪮏, 𪮐, 𪮑, 𪮒, 𪮓, 𪮔, 𪮕, 𪮖, 𪮗, 𪮘, 𪮙, 𪮚, 𪮛, 𪮜, 𪮝, 𪮞, 𪮟, 𪮠, 𪮡, 𪮢, 𪮣, 𪮤, 𪮥, 𪮦, 𪮧, 𪮨, 𪮩, 𪮪, 𪮫, 𪮬, 𪮭, 𪮮, 𪮯, 𪮰, 𪮱, 𪮲, 𪮳, 𪮴, 𪮵, 𪮶, 𪮷, 𪮸, 𪮹, 𪮺, 𪮻, 𪮼, 𪮽, 𪮾, 𪮿, 𪯀, 𪯁, 𪯂, 𪯃, 𪯄, 𪯅, 𪯆, 𪯇, 𪯈, 𪯉, 𪯊, 𪯋, 𪯌, 𪯍, 𪯎, 𪯏, 𪯐, 𪯑, 𪯒, 𪯓, 𪯔, 𪯕, 𪯖, 𪯗, 𪯘, 𪯙, 𪯚, 𪯛, 𪯜, 𪯝, 𪯞, 𪯟, 𪯠, 𪯡, 𪯢, 𪯣, 𪯤, 𪯥, 𪯦, 𪯧, 𪯨, 𪯩, 𪯪, 𪯫, 𪯬, 𪯭, 𪯮, 𪯯, 𪯰, 𪯱, 𪯲, 𪯳, 𪯴, 𪯵, 𪯶, 𪯷, 𪯸, 𪯹, 𪯺, 𪯻, 𪯼, 𪯽, 𪯾, 𪯿, 𪰀, 𪰁, 𪰂, 𪰃, 𪰄, 𪰅, 𪰆, 𪰇, 𪰈, 𪰉, 𪰊, 𪰋, 𪰌, 𪰍, 𪰎, 𪰏, 𪰐, 𪰑, 𪰒, 𪰓, 𪰔, 𪰕, 𪰖, 𪰗, 𪰘, 𪰙, 𪰚, 𪰛, 𪰜, 𪰝, 𪰞, 𪰟, 𪰠, 𪰡, 𪰢, 𪰣, 𪰤, 𪰥, 𪰦, 𪰧, 𪰨, 𪰩, 𪰪, 𪰫, 𪰬, 𪰭, 𪰮, 𪰯, 𪰰, 𪰱, 𪰲, 𪰳, 𪰴, 𪰵, 𪰶, 𪰷, 𪰸, 𪰹, 𪰺, 𪰻, 𪰼, 𪰽, 𪰾, 𪰿, 𪱀, 𪱁, 𪱂, 𪱃, 𪱄, 𪱅, 𪱆, 𪱇, 𪱈, 𪱉, 𪱊, 𪱋, 𪱌, 𪱍, 𪱎, 𪱏, 𪱐, 𪱑, 𪱒, 𪱓, 𪱔, 𪱕, 𪱖, 𪱗, 𪱘, 𪱙, 𪱚, 𪱛, 𪱜, 𪱝, 𪱞, 𪱟, 𪱠, 𪱡, 𪱢, 𪱣, 𪱤, 𪱥, 𪱦, 𪱧, 𪱨, 𪱩, 𪱪, 𪱫, 𪱬, 𪱭, 𪱮, 𪱯, 𪱰, 𪱱, 𪱲, 𪱳, 𪱴, 𪱵, 𪱶, 𪱷, 𪱸, 𪱹, 𪱺, 𪱻, 𪱼, 𪱽, 𪱾, 𪱿, 𪲀, 𪲁, 𪲂, 𪲃, 𪲄, 𪲅, 𪲆, 𪲇, 𪲈, 𪲉, 𪲊, 𪲋, 𪲌, 𪲍, 𪲎, 𪲏, 𪲐, 𪲑, 𪲒, 𪲓, 𪲔, 𪲕, 𪲖, 𪲗, 𪲘, 𪲙, 𪲚, 𪲛, 𪲜, 𪲝, 𪲞, 𪲟, 𪲠, 𪲡, 𪲢, 𪲣, 𪲤, 𪲥, 𪲦, 𪲧, 𪲨, 𪲩, 𪲪, 𪲫, 𪲬, 𪲭, 𪲮, 𪲯, 𪲰, 𪲱, 𪲲, 𪲳, 𪲴, 𪲵, 𪲶, 𪲷, 𪲸, 𪲹, 𪲺, 𪲻, 𪲼, 𪲽, 𪲾, 𪲿, 𪳀, 𪳁, 𪳂, 𪳃, 𪳄, 𪳅, 𪳆, 𪳇, 𪳈, 𪳉, 𪳊, 𪳋, 𪳌, 𪳍, 𪳎, 𪳏, 𪳐, 𪳑, 𪳒, 𪳓, 𪳔, 𪳕, 𪳖, 𪳗, 𪳘, 𪳙, 𪳚, 𪳛, 𪳜, 𪳝, 𪳞, 𪳟, 𪳠, 𪳡, 𪳢, 𪳣, 𪳤, 𪳥, 𪳦, 𪳧, 𪳨, 𪳩, 𪳪, 𪳫, 𪳬, 𪳭, 𪳮, 𪳯, 𪳰, 𪳱, 𪳲, 𪳳, 𪳴, 𪳵, 𪳶, 𪳷, 𪳸, 𪳹, 𪳺, 𪳻, 𪳼, 𪳽, 𪳾, 𪳿, 𪴀, 𪴁, 𪴂, 𪴃, 𪴄, 𪴅, 𪴆, 𪴇, 𪴈, 𪴉, 𪴊, 𪴋, 𪴌, 𪴍, 𪴎, 𪴏, 𪴐, 𪴑, 𪴒, 𪴓, 𪴔, 𪴕, 𪴖, 𪴗, 𪴘, 𪴙, 𪴚, 𪴛, 𪴜, 𪴝, 𪴞, 𪴟, 𪴠, 𪴡, 𪴢, 𪴣, 𪴤, 𪴥, 𪴦, 𪴧, 𪴨, 𪴩, 𪴪, 𪴫, 𪴬, 𪴭, 𪴮, 𪴯, 𪴰, 𪴱, 𪴲, 𪴳, 𪴴, 𪴵, 𪴶, 𪴷, 𪴸, 𪴹, 𪴺, 𪴻, 𪴼, 𪴽, 𪴾, 𪴿, 𪵀, 𪵁, 𪵂, 𪵃, 𪵄, 𪵅, 𪵆, 𪵇, 𪵈, 𪵉, 𪵊, 𪵋, 𪵌, 𪵍, 𪵎, 𪵏, 𪵐, 𪵑, 𪵒, 𪵓, 𪵔, 𪵕, 𪵖, 𪵗, 𪵘, 𪵙, 𪵚, 𪵛, 𪵜, 𪵝, 𪵞, 𪵟, 𪵠, 𪵡, 𪵢, 𪵣, 𪵤, 𪵥, 𪵦, 𪵧, 𪵨, 𪵩, 𪵪, 𪵫, 𪵬, 𪵭, 𪵮, 𪵯, 𪵰, 𪵱, 𪵲, 𪵳, 𪵴, 𪵵, 𪵶, 𪵷, 𪵸, 𪵹, 𪵺, 𪵻, 𪵼, 𪵽, 𪵾, 𪵿, 𪶀, 𪶁, 𪶂, 𪶃, 𪶄, 𪶅, 𪶆, 𪶇, 𪶈, 𪶉, 𪶊, 𪶋, 𪶌, 𪶍, 𪶎, 𪶏, 𪶐, 𪶑, 𪶒, 𪶓, 𪶔, 𪶕, 𪶖, 𪶗, 𪶘, 𪶙, 𪶚, 𪶛, 𪶜, 𪶝, 𪶞, 𪶟, 𪶠, 𪶡, 𪶢, 𪶣, 𪶤, 𪶥, 𪶦, 𪶧, 𪶨, 𪶩, 𪶪, 𪶫, 𪶬, 𪶭, 𪶮, 𪶯, 𪶰, 𪶱, 𪶲, 𪶳, 𪶴, 𪶵, 𪶶, 𪶷, 𪶸, 𪶹, 𪶺, 𪶻, 𪶼, 𪶽, 𪶾, 𪶿, 𪷀, 𪷁, 𪷂, 𪷃, 𪷄, 𪷅, 𪷆, 𪷇, 𪷈, 𪷉, 𪷊, 𪷋, 𪷌, 𪷍, 𪷎, 𪷏, 𪷐, 𪷑, 𪷒, 𪷓, 𪷔, 𪷕, 𪷖, 𪷗, 𪷘, 𪷙, 𪷚, 𪷛, 𪷜, 𪷝, 𪷞, 𪷟, 𪷠, 𪷡, 𪷢, 𪷣, 𪷤, 𪷥, 𪷦, 𪷧, 𪷨, 𪷩, 𪷪, 𪷫, 𪷬, 𪷭, 𪷮, 𪷯, 𪷰, 𪷱, 𪷲, 𪷳, 𪷴, 𪷵, 𪷶, 𪷷, 𪷸, 𪷹, 𪷺, 𪷻, 𪷼, 𪷽, 𪷾, 𪷿, 𪸀, 𪸁, 𪸂, 𪸃, 𪸄, 𪸅, 𪸆, 𪸇, 𪸈, 𪸉, 𪸊, 𪸋, 𪸌, 𪸍, 𪸎, 𪸏, 𪸐, 𪸑, 𪸒, 𪸓, 𪸔, 𪸕, 𪸖, 𪸗, 𪸘, 𪸙, 𪸚, 𪸛, 𪸜, 𪸝, 𪸞, 𪸟, 𪸠, 𪸡, 𪸢, 𪸣, 𪸤, 𪸥, 𪸦, 𪸧, 𪸨, 𪸩, 𪸪, 𪸫, 𪸬, 𪸭, 𪸮, 𪸯, 𪸰, 𪸱, 𪸲, 𪸳, 𪸴, 𪸵, 𪸶, 𪸷, 𪸸, 𪸹, 𪸺, 𪸻, 𪸼, 𪸽, 𪸾, 𪸿, 𪹀, 𪹁, 𪹂, 𪹃, 𪹄, 𪹅, 𪹆, 𪹇, 𪹈, 𪹉, 𪹊, 𪹋, 𪹌, 𪹍, 𪹎, 𪹏, 𪹐, 𪹑, 𪹒, 𪹓, 𪹔, 𪹕, 𪹖, 𪹗, 𪹘, 𪹙, 𪹚, 𪹛, 𪹜, 𪹝, 𪹞, 𪹟, 𪹠, 𪹡, 𪹢, 𪹣, 𪹤, 𪹥, 𪹦, 𪹧, 𪹨, 𪹩, 𪹪, 𪹫, 𪹬, 𪹭, 𪹮, 𪹯, 𪹰, 𪹱, 𪹲, 𪹳, 𪹴, 𪹵, 𪹶, 𪹷, 𪹸, 𪹹, 𪹺, 𪹻, 𪹼, 𪹽, 𪹾, 𪹿, 𪺀, 𪺁, 𪺂, 𪺃, 𪺄, 𪺅, 𪺆, 𪺇, 𪺈, 𪺉, 𪺊, 𪺋, 𪺌, 𪺍, 𪺎, 𪺏, 𪺐, 𪺑, 𪺒, 𪺓, 𪺔, 𪺕, 𪺖, 𪺗, 𪺘, 𪺙, 𪺚, 𪺛, 𪺜, 𪺝, 𪺞, 𪺟, 𪺠, 𪺡, 𪺢, 𪺣, 𪺤, 𪺥, 𪺦, 𪺧, 𪺨, 𪺩, 𪺪,



‘속자, 동자, 약자’ 등은 한자임에 틀림 없다. ‘구결 이두 합자, 합자, 구결자’ 등은 우리말을 표기한 것이므로 借字의 범주로 다루어야 한다. 그러나 ‘구결 이두 합자, 합자’ 등은 남풍현(1989:108-109)에 따르면 한문 문맥에 쓰이는 우리말을 표기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므로 넓은 의미에서는 한자의 범주에서 다룰 수 있다. 특히 畵와 같이 會意에 의한 합자 방식의 國字와 垚와 같이 형성에 의한 國字들은 漢字의 면모를 가지고 자 했으므로 한자의 범주에서 다룰 수 있다.

한편 구결자는 우리말의 문법 형태소를 표기하기 위한 것이므로 차자의 범주에 속한다. 하지만 한글과 한자의 양분 체계인 현대의 문자 생활을 고려하면 구결자를 한자의 범주로 다룰 수밖에 없음을 남풍현(1989:108-109)은 말하고 있다.

『韓國漢字語辭典』에서 악보 기호를 國字로 규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은 文字가 아니라 부호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이다.

『韓國漢字語辭典』에서 字書나 韻書에 실리지 않은 글자를 명백한 근거 없이 國字로 규정한 것도 문제이다. 자형 형성의 원리를 규명하여 國字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 이러한 글자들 몇 개에 대해서 그 고유성을 입증하는 근거를 제시했으나 근거가 없는 글자들의 경우 그 근거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 Ⅲ. 『통합 漢韓大辭典』의 國字 보완

#### 1. 남풍현(1989)에서 논의된 한국 고유한자의 추가

남풍현(1989:98-101)은 다음과 같이 신라 시대와 통일 신라 시대에 습字된 한국 고유한자를 기술하고 있다.

- (20) 가. [大/畵](大畵), [小/畵](小畵) [上/干](上干) [一/伐](一伐), [一/尺](一尺), [大/鳥](大鳥) [小/鳥](小鳥) [上/人](上人) 〈南山新成碑(591)〉  
 나. [大/畵](大畵) 〈新羅華嚴經寫經造成記(755)〉  
 다. 朶(乃末), 契(功夫) 〈永川菁堤碑貞元銘(798)〉  
 라. d. 柰(大等) 柰(大末) 〈興法寺眞空大師塔碑陰記(940)〉  
 마. 柰(大等) 柰(大末) 〈龍頭寺幢竿記(962)〉

『韓國漢字語辭典』에서는 大畵, 小畵 등과 같이 어휘로 비록 등재하고 있으나 (20)에 제시된 것들은 2개의 글자가 합자되어 1글자를 형성한 것이다. 또 남풍현(1989)에서 기술되었듯이 어떤 글자들은 합자될 때 글자의 획에 변형이 가해졌으므로 이들을 하나의 글자로 취급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금석문 자료에서 발견되는 자형이라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또 남풍현(1989, 2014:583-585)은 생획에 의한 고유한자로 다음과 같은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21) 가. 정자의 뒷 부분을 생획한 것

章(章), 宋(寂), 徧(徧), 𣎵(機), 木卅(權), ㄱ, 音(音), 疑(疑), 𣎵(感), 显(顯),  
𣎵(嚴), 屯(頓), 豆(頭), 角(解), 加(迦)

나. 정자의 앞 부분을 생획한 것.

𣎵(能), 𣎵(修), 𣎵(釋), 𣎵(經), 𣎵(識), 寸(尊), 𣎵(緣), 𣎵(錄), 胃(謂),  
失(失, 實), 里(理), 舍(捨), 吉(結), 𣎵(葉), 全(詮), 勿(物), 辰(震), 帝(諦),  
吾(悟), 票(標), 𣎵(碍), 𣎵(總), 过, 𣎵(邊), 还(還)

다. 정자의 중간 부분을 생획한 것

謂(謂), 𣎵(榜), 𣎵(滅), 𣎵(榮), 𣎵(提)

라. 其他

𣎵(羅), 𣎵(国, 國), 𣎵(衆), 𣎵(等), 𣎵(行), 𣎵(衍)

남풍현(1989, 2014:583)은 (21)에 제시된 생획자를 17세기 이후의 승려가 개인의 備忘을 위하여 佛書에 기입한 주석들에서 수집한 것임을 말하고 있다. (21)에 제시된 생획자들은 자형 상 한국 고유성을 가지는 것으로 생각된다.<sup>12)</sup>

## 2.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에서 채집된 구결 이두 합자의 검토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구축 사업은 1999년부터 약 10여 년 간 진행되었는데, 전국 주요 국학 연구기관이 소장한 한적 자료를 디지털화하였다. 이 과정에서 EXT\_B까지의 유니코드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 신출자 6,000여자를 발굴하였다. 이 신출자는 한국역사정보시스템(<http://www.koreanhistory.or.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에서 채집된 신출자에 대한 검토는 신상현(2005)에서 이루어졌다. 신상현(2005)은 인명용 한자를 주로 논의하고 있다. 신상현(2005)은 인명용 한자의 두 가지 유형을 논의하고 있다. 하나는 구결 이두자의 합자 유형이고, 다른 하나는 한자를 변형하여 새로운 한자를 만든 유형이다. 신상현(2005: 159)은 후자의 유형으로 1,262자의 글자임을 보고하고 있다. 한편 신상현(2005:159)은 전자의 유형으로 134자를 보고하고 있다.

신상현(2005:159) 이후로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에서 신출자를 더 채집하였는데, 구결 이두자의 합자 유형으로 새로이 추가된 글자는 다음과 같다.

12)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중국에서 기원한 자형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예컨대 衆의 경우 『漢韓大辭典』에 실려 있는데, 衆立의 의미로 풀이되어 있다.



〈표 4〉 한국역사정보시스템 정리 구결 이두 한자 신출 목록

상부 구성소	하부 구성소	글자수
近, 里, 磨, 買, 木, 史, 石, 昭, 阿, 曰, 自, 住, 太, 禾	ㄱ(ㄱ)	14
古, 老, 訥, 愁, 自, 早, 主	ㄴ(ㄴ)	7
[𪛗, 介, 桀?, 迭, 高, 骨, 鹿, 久, 仇, 求, 吉, 累, 代, 杜, 登, 麻, 紿, 勿, 夫, 省, 少, 束, 垂, 是, 身, 阿, 謁, 余, 如, 雲, 月, 茲, 條, 住, 朱, 註, 之, 知, 浦, 乎	ㄷ(ㄷ)	40
瓜, 承	ㅁ(ㅁ)	2
愁, 于, 眞	ㅂ(ㅂ)	3
禿, 後	ㅅ(ㅅ)	2
/今 <sup>13)</sup> , /知, 可, 具, 求, 丹, 帶, 刀, 陶, 來, 馬, 某, 沒, 毋, 無, 味, 尾, 米, 不, 富, 扶, 浮, 北, 分, 事, 山, 少, 昭, 束, 吾, 王, 仍, 曹, 主, 住, 朱, 酒, 卽, 只, 秋, 土, 何	ㅇ(ㅇ)	42
합계		110

### 3. 기타

#### (1) 노명호 외(2000)에서 정리된 이체자

노명호 외(2000)는 한국의 고대와 중세의 고문서 자료를 망라적으로 수집하여 해설을 붙이고 정확한 판독을 제시하고 있다. 판독문의 제시 과정에서 이체자를 정리하고 있다. 다수의 약자, 속자, 동자 등의 이체자를 정리하고 있으나 대다수는 중국 기원의 근거가 발견되는 것들이다. 다만 다음의 이체자는 현재 출처를 알 수 없는 略字이다.

#### (22) 𪛗 邊의 약자

妻父朴氏𪛗〈尹光瑛奴婢別給粘連文書, 1354〉 父𪛗〈辛氏姉妹奴婢分執文記, 1404〉, 父𪛗〈張戡處辛氏宣德二年所志 1427〉, 父𪛗傳來〈金務奴婢許與文記, 1429〉, 矣𪛗奴小斤〈權明利奴婢許與文記 1414〉, 麻 壹𪛗〈淨兜寺造塔形止記 1019〉

(22)의 𪛗는 한자에서는 過의 속자로 쓰인다.<sup>14)</sup> 그런데 한국의 문헌에서 𪛗은 邊의 속자로 쓰이는 점이 특이하다. 𪛗과 邊이 이체 관계에 있음은 남풍현(1989)에서 언급되었으며, 이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설명하였다.

13) ‘/’ 표시는 아래와 위의 구성소가 뒤바뀐 것을 표시한다.

14) 『漢韓大辭典』, 𪛗, “과, 過의 속자. 《改併四聲篇海, 辵部》 俗字背篇: 𪛗, 與過同, 今列俗. 《篇海類編, 人事類, 辵部》 𪛗, 俗過字.”

## (2) 노명호 외(2000)에서 정리된 國字

다음은 字形 상 한국 고유성이 파악되는 경우이다.

(23) 가. 石塔 五[言弁] 新造 〈傳密陽小臺里寺址堂塔造成記(1109년)〉

나. 三寶 內 鑰[金窰] 一 入 〈傳密陽小臺里寺址堂塔造成記(1109년)〉

노명호 외(2000:487)에서 (23가)의 [言弁]를 탑 상륜부의 寶輪이나 옥개석 끝의 風鐸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글자는 이 자료에 유일하게 나온 것으로 더 이상의 사실을 알아 내기가 어렵다. 다만 [言弁]이 風鐸이라면, 論의 이체자일 가능성이 있다. 『漢韓大辭典』에서 論의 뜻으로 “놀이나 운동에 쓰던 기구(氣球)의 일종”을 제시하고 있는데, [言弁]과 論의 연관성을 생각해 볼 수 없다. 그러나 두 글자 사이에 보이는 자형의 차이를 다른 예에서는 볼 수 없어서 현재로서는 미상이다.

(23나) [金窰]는 노명호 외(2000:486)에서 ‘쇠로 만든 항아리’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해석은 [金窰]를 회의자로 해석한 것이다. 중국에서 ‘佛骨舍利金窰’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면 [金窰]를 ‘쇠로 만든 항아리’로 해석하는 것에 무리가 없다. 특히 (23나)는 鑰[金窰]이 三寶堂 안에 안치된 것임을 말하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鑰[金窰]은舍利를 보관하기 위하여 ‘놋쇠로 만든 쇠항아리’가 아닌가 한다. 이러한 추정은 단양의 구인사 삼보당의 기능과 관련하여 신빙성이 높아진다. 단양 구인사의 삼보당이 가진 기능을 구인사 홈페이지(<http://www.cheontae.org>)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24) 삼보당 안에는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존상을 비롯하여 천태종 제2대 종정스님이신 남대충 스님의 진영(眞影)이 모셔져 있어 신도님들이 역대 종정스님께서 남기신 큰 뜻을 마음깊이 새기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구인사 홈페이지, 전각안내, 삼보당〉

(24)는 ‘삼보당’이 불교 三寶의 하나인 僧을 존송하는 공간임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三寶堂에 안치된 (23나)의 鑰[金窰]이 佛 또는 僧에 관계된 것임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鑰[金窰]이 佛 또는 僧의 舍利를 모셔 두는 항아리임을 암시한다. 결국 鑰[金窰]의 [金窰]은 鑰窰의 窰에 意符 金을 첨가하여 형성된 자형임을 추측케 한다. 한국 문헌 자료에서만 발견되는 점에서 자형 상 고유성을 가지는 國字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 (3) 신라어 ‘\*꺄’를 표기한 한자 𪎫

신라어 ‘\*꺄’를 표기한 한자가 중국 운서나 자서에 실려 있어 주목된다. 다음 자료들은 『康熙字典』에서 가져온 것이다.

(25) 가. 𪎫 新羅謂絹曰𪎫 〈集韻 入聲 二十六緝, 極入切〉

나. 𪚩 訖立切 新羅謂絹曰𪚩 〈類篇〉

다. 𪚩 其立切, 音及【五音集韻】新羅謂絹曰𪚩 〈字彙補〉

(25)에서 ‘新羅謂絹曰𪚩’이라 설명한 것이 주목된다. 『訓蒙字會』 中:15a에서 絹의 훈을 ‘깁’이라 한 것에서 보듯이 후기 중세국어에서 한어 絹에 대응하는 우리말이 ‘깁’이기 때문이다.

陳彭年이 1008년에 편찬한 『大宋重修廣韻』에는 26,194자가 표제자로 수록되어 있다. 그런데 1037년에 丁度가 편찬한 『集韻』에 이르러 표제자의 대폭적인 추가가 있었다. 즉 『集韻』에는 53,525자가 수록되어 있다. 『大宋重修廣韻』과 비교하면 무려 17,331자의 증가가 있었다. 그런데 사실은 이중으로 제시된 표제자를 제외하더라도 5,125자<sup>15)</sup>의 증가가 있었다. 이러한 글자수의 대폭적인 증가는 『集韻』이 다양한 문헌을 조사하여 표제자 수를 확대시킨 것임을 말하여 준다. 이러한 과정에서 𪚩도 채집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 표기가 신라인에 의한 표기임은 분명하다.

『倭語類解』 하:9a에 ‘깁 帛 帛’이 있어 𪚩의 자형 형성 방법을 帛[\*깁]+及[\*깁]의 구성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 경우 帛[\*깁]이 의미를 표시하고, 及[\*깁]은 음을 표시하는데, 이는 形성에 의한 자형 형성 방법이 된다.

후기 중세국어 어형은 ‘깁’이고, 이것의 선대형인 신라어의 음상이 ‘及’으로 표기된 사실은 후기 중세국어 ‘깁’의 신라 시대 음상은 ‘\*깁’ 정도였을 가능성을 열어 준다. 이것은 이기문(1961, 1998:86)이 말한 바 고대국어 단계에는 ‘l’가 둘(i, ɪ)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추정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다. 즉 이기문(1961, 1998:86)이 말한 처용가의 明期 불개의 ‘기’와 같은 존재임을 말하는 것이다.

이기문(1991:248)은 우리말 ‘깁’의 의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진술을 하고 있다.

(26) 한국어의 깁(絹)과 同義의 몽고어 단어 kiib이 있다. 이 kiib은 몽고어 단어로서는 그 音相이 특이하여 차용어일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다. 더욱이, 중세한국어의 ‘깁’이 上聲이었음을 생각하면 이것이 몽고어에서 들어가 長母音으로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26)의 진술에 착안하여 몽고어 자료에서 ‘깁’의 의미와 관련한 자료를 찾을 수 있다.

(27) 가. (몽) gkiib 包頭 (만) Sufari, Sufa 〈蒙文倒綱〉

나. (몽) gkib(=kiib) 包頭(婦人所用者) (만) Sufari 〈蒙文總彙〉

(27)에 제시된 몽고어 gkiib, gkib, kiib 등은 (26)의 kiib과 관련이 있는 어휘이다. 그런데 (27)은 몽고어 kiib, gkib, kiib 등의 의미를 包頭로 풀이하고 있다. 『譯語類解』 上:43b에 包頭 ‘마리 뺀 것’으로 풀이하

15) 이것은 司馬光이 1006년 편찬한 『類篇』의 서문에서 53,525자를 분석하여 文 31,319자, 重音 21,846자, 僅 53,165자, 교 360자 등으로 설명한 것에 근거한 것이다.

는 것으로 보아 몽고어 kiib, gkib, kiib 등의 중심적 의미는 ‘물건을 싸다’의 의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의 확인으로 명사 ‘깁’과 파생 관계에 있는 동사 ‘깁다’의 의미 중 하나로 ‘싸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누에가 자신의 몸을 ‘깁’으로 둘러싼 것이 ‘누에고치’가 아닌가 한다.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우리는 軀의 자형이 한국 고유의 특성을 가진 것임을 이해할 수 있다.

#### (4) 『이체자사전』의 [麥蕎] 검토

『이체자사전』에서 유일하게 [麥蕎]을 한국 특용한자로 國字로 소개하였다.

(28) 가. [麥蕎], 「麵者麥末也……有豆麵、[麥蕎]麵、有菽豆麵、胡麻麵。(與猶堂全書 雅言覺非)

〈이체자사전〉

나. 村店賣[麥蕎]麪 村店賣蕎麪 〈陸游(1125~1209) 詩〉

『이체자사전』에서 (28가)를 근거로 [麥蕎]를 한국 특용한자로 소개했으나 (28나)와 같은 중국 문헌 자료를 고려할 때, [麥蕎]는 한자일 가능성이 높다.<sup>16)</sup>

## IV. 결 언

이 글은 『韓國漢字語辭典』(1996)의 國字 처리 실태를 검토하고, 『통합 한한대사전』에서 보완해야 할 國字에 대해 논의하였다.

國字 처리 실태의 측면에서 『韓國漢字語辭典』(1996) 등의 國字 판단 기준이 중국 역대 자서나 운서의 수록 여부에 있음을 밝혔고, 鮎貝房之進(1931)의 경우에는 자형 형성 방법의 고유성도 國字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음을 밝혔다. 아울러 자형 형성 방법의 고유성이 國字 판단의 중요한 기준임을 강조하였다.

『韓國漢字語辭典』(1996)의 國字 세부 유형으로 ‘구결 이두 합자, 합자, 속자, 동자, 약자, 구결자, 악보기호’ 등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세부 유형이 제시되지 않은 國字도 다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구결 이두 합자, 합자, 구결자 등의 경우에는 字形 상 고유성이 확실하며, 속자, 동자, 약자 등의 경우에는 字形 상 고유성을 더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언급하였다. 그리고 악보 기호의 일부가 중국에서 기원한 것임을 밝혔다. 세부 유형이 제시되지 않은 國字의 경우 字形 상 고유성을 검토해야 할 것을 언급하였다.

『韓國漢字語辭典』(1996)에서 새로이 國字로 규정한 것이 다수 있음을 밝혔고, 일부의 國字에 대해서는 字

16) 『訓蒙字會』의 표제자에는 이체자가 더러 있다. 이 이체자가 자형 그대로 한자 사전류에 실려 있지 않다. 이것으로 인해 『訓蒙字會』의 이체자들이 사전에 실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훈몽자회』 하: 8a에는 ‘𪛗 괴울 덤’이 실려 있다. 그런데 『訓蒙字會』에 서사된 자형은 𪛗와는 자형이 다르다. 𪛗에서는 𪛗가 하단 중앙에 서사되어 있으나 『訓蒙字會』에서는 𪛗가 하단 우측에 치우쳐 서사되어 있다. 그러나 두 글자의 의미가 같으므로 두 글자는 다른 글자가 아니라 이체자 관계에 있다.

形 상 고유성을 가지는 근거를 제시하였으며, 일부의 國字는 한자로 규정해야 할 근거를 제시하였다. 한편 누락한 國字도 다수 있음을 밝혔다.

鮎貝房之進(1931)에서 속자 즉 國字로 규정한 것들의 일부를 『韓國漢字語辭典』(1996)에서 國義字로 규정하여 일부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으나 일부는 긍정적 결과를 가져왔음을 밝혔다. 字形 상 고유성이 있는 것조차 國義字로 규정한 것은 부정적 결과이며, 國字로 규정한 것을 국의자로 규정한 것은 긍정적 결과임을 언급하였다.

『통합 漢韓大辭典』의 國字 보완 측면에서 새로이 추가되어야 할 國字의 목록을 제시하였다. 남풍현(1989)에서 논의된 합자,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에서 채집된 구결 이두 합자, 노명호 외(2000)에서 정리된 이체자와 國字, 신라어 ‘\*꺾’을 표기한 한자 𪎮 등을 새로이 國字로 규정해야 함을 언급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통합 漢韓大辭典』에서는 자형 상의 고유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것만을 國字로 처리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한편, 우리말을 표기하기 위한 借字는 오늘날 차자 표기 체계가 운용되지 않는 사실을 고려하여 한자에 포함시켜야 함을 제안하였다. 借字는 자형 상 한국 고유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國字가 된다. 또 악보 부호는 글자가 아니므로 國字에서 제외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글에서는 垚와 같이 차자 표기 경험을 가진 것은 國字임에 틀림없음을 밝혔고, 이러한 원리가 國字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 〈참고문헌〉

### 1. 資料

- 『康熙字典』(<http://tool.httpcn.com/KangXi>)
- 『高麗史』, 아세아문화사, 1972.
- 『公車文』, 서울대규장각한국학연구원, <http://e-kyujanggak.snu.ac.kr/search/e-kyu.jsp>
- 『大宋增修廣韻』, 陳彭年等 奉勅撰, 字典彙編編委會 編, 國際文化出版公司, 1993.
- 『武藝圖譜通志』, 홍문각, 1990.
- 『武藝圖譜通志諺解』, 홍문각, 1990.
- 戚繼光, 『紀效新書』, 國防軍史研究所, 1998.
- 宋 陳元[青]見 撰, 『事林廣記』, 中華書局, 1991.
- 『三國史記』, 대제각, 1987.
- 『新字典』, 朝鮮光文會, 1915.
- 東亞大學校 古典研究室編, 『譯註高麗史』, 東亞大學校出版社, 1966.
-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한국고전번역원, <http://db.itkc.or.kr>
- 『倭語類解』, 대제각, 1985.

- 『類篇』, 司馬光等 奉勅撰, 字典彙編編委會 編, 國際文化出版公司, 1993.
- 黃胤錫, 『頤齋亂藁』,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디지털아카이브, <http://yoksa.aks.ac.kr>
- 『集韻』, 丁度等 奉勅撰, 字典彙編編委會 編, 國際文化出版公司, 1993.
- 『日省錄』, 서울대규장각한국학연구원, <http://e-kyujanggak.snu.ac.kr/search/e-kyu.jsp>
- 池錫永, 『字典釋要』, 1909.
- 鄭東愈, 『晝永編』, 국립중앙도서관, 古091-7.
- 李晬光, 『芝峯類說』, 한국고전번역원, <http://db.itkc.or.kr>
- 『震覽』, 서울대 규장각, 가람古903 J563.
- 『異體字字典』, 대만, <http://dic2.variants.more.edu.tw>
- 李德懋, 『盎葉記』, 『靑莊館全書』, 한국고전번역원, <http://db.itkc.or.kr>.
- 『표준국어대사전』, 국립국어연구원, <http://www.korean.go.kr>.
- 『訓蒙字會』, 단국대학교출판부, 1983. (재판 영인본)

## 2. 논저

- 金山, 『『武藝圖譜通志』 長兵武藝 復原의 實際와 批判』,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 金鍾埴, 『韓國固有漢字研究』, 集文堂, 1983.
- 南豐鉉, 『借字表記法研究』, 檀大出版部, 1981.
- 南豐鉉, 「韓國의 固有漢字」, 『국어생활』 17, 국어연구소, 1989.
- 南豐鉉, 『吏讀研究』, 태학사, 2000.
- 남풍현, 『韓國語와 漢字·漢文의 만남』, 도서출판 월인, 2014.
- 남풍현, 「密陽小台里 五層石塔 造成緣由記의 판독과 해독」, 『구결연구』 33, 구결학회, 2014.
- 盧明鎬 외(2000), 『韓國古代中世古文書研究(上)』, 서울대학교출판부.
- 檀國大東洋學研究所 編, 『韓國漢字語辭典』,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1992~1996.
- 檀國大東洋學研究所 編, 『漢韓大辭典』,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1999~2008.
- 柳在泳, 「韓國漢字」, 『국어국문학』 30, 원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76.
- 朴盛鍾, 「韓國漢字의 一考察」, 『口訣研究』 14, 구결학회, 2005.
- 박찬규, 「韓國漢字語辭典에 수용된 이두·구결·차자어의 구성과 출전문헌」, 『동양학』 52, 단국대 동양학연구원, 2012.
- 宋芳松, 『악학궤범용어총람』, 보고서, 2010.
- 松村明 編, 『大辭林 第三版』, 일본 東京: 三省堂, 2006.
- 신상현, 「한국 고유한자 조사 연구: 인명용 고유한자를 중심으로」, 『民族文化研究』 43,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5.
- 신상현, 『조선시대 한자 자형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 栗林均 編, 『蒙文総彙—モンゴル語ローマ字転写配列—』, 東東北アジア研究センター叢書 第37号, 東北大学東北アジア研究センター, 2010.
- 栗林均・斯欽巴図 編, 『蒙文倒綱』, 東東北アジア研究センター叢書 第52号, 東北大学東北アジア研究センター, 2014.
- 이건식, 「口訣字의 코드체계 定立을 위한 試論」, 『구결연구』 1, 구결학회, 1996.
- 이건식, 「한국 고유한자의 발달-지명의 후부 요소 표기를 중심으로-」, 『구결연구』 22, 구결학회, 2009.
- 이건식, 「한국 고유 한자 ㅅ의 시대별 용례와 시원적 의미」, 『국문학논집』 21, 단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011.
- 이건식, 「한국 고유한자 자형 구성 방법 연구 二題-기존 연구의 비판적 검토와 形聲으로 만들어진 한국 고유한자의 몇 가지 사례」, 『東洋學』 52, 단국대 동양학연구원, 2012.
- 이건식, 「한국 고유한자 구성요소 ㅅ의 의미와 특수성 형성 배경」, 『한민족문화연구』 42, 한민족문화학회, 2013.
- 李基文, 『國語史概說 改訂版』, 탑출판사, 1961(1998).
- 이기문, 『국어어휘사 연구』, 동아출판사, 1991.
- 李忠九, 「晝永編에 蒐集된 韓國漢字의 分析研究」, 『首善論集』 8, 成均館大學校 大學院 學生會, 1983.
- 鮎貝房之進, 『俗字攷』, 雜攷, 東京: 圖書刊行會, 1931.
- 정구복 외, 『개정증보 역주삼국사기 주석편 4』,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2.
- 諸橋轍次, 『大漢和辭典』, 大修館書店, 1985(昭和 六十年).
- 최동언, 『조선식한문연구』, 북한 사회과학원, 2001.
- 하영삼, 「한국 고유한자의 비교적 연구」, 『중국어문학』 33, 영남중국어문학회, 1999.
- 漢語大詞典編輯委員會 編, 『漢語大詞典』, 漢語大詞典出版社, 1991~1993.
- 홍기문, 『리두연구』, 과학원출판사, 1957.
- 黃喜玖, 『天然媒染劑應用於植物染可行性之研究』, 臺灣: 樹德科技大學 석사학위논문, 2003.
- 홍윤표, 「고전을 이해하기 위한 어휘사전 편찬이 시급하다」, 인문공감칼럼, 2013.01.16.

\* 이 논문은 2014년 11월 28일에 투고되어,  
2015년 3월 9일까지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2015년 3월 31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5년 4월 3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 결정되었음.

## ■ Abstract ■

---

### On the Treatments of Korean-originated Chinese Characters in *the Unified Great Chinese-Korean Dictionary*

Lee, Keonsik\*

This paper examined the real treating situations of letters of a country (hereafter, Korean) in a 「dictionary of compound words of Korean made of Chinese characters (1997)」 and discussed Korean to be supplemented in an integrated 「Chinese-Korean Dictionary」.

In a real-state aspect of treating Korean, the judgment standards of Korean in the “dictionary of compound words of Korean made of Chinese characters (1997)” were whether the words are recorded in a dictionary of Chinese characters or a dictionary of rhyme of Chinese characters. In case of Ayugai Husanoshin (1931), he revealed that the peculiarity of formation methods of characters' shapes was made to be the judgment standards of Korean.

As detailed types of Korean in the 「dictionary of compound words of Korean made of Chinese characters (1997)」, it was checked that there are “Gugyeol Idu hap-ja [double letters with Gugyeol and Idu], hap-ja [double letters], sok-ja [simplified forms of letters], dong-ja [same letters], yak-ja [abbreviations], Gugyeol-ja [Gugyeol letters], and musical characters”. It stated that there was lots of Korean that the detailed types were not proposed.

It disclosed that there are lots of things newly defined as Korean in the 「dictionary of compound words of Korean made of Chinese characters (1997)」. About some of Korean, bases with peculiarities in shapes of characters were presented. About other letters of Korean, bases which should be defined as Chinese characters were proposed. On the other hand, it revealed that there was a lot of Korean missed-out. Ayugai Husanoshin (1931) prescribed sok-ja [simplified forms of letters], namely, some of Korean as gukui-ja [letters whose new meanings are endowed, different from the original meanings] in the 「dictionary of compound words of Korean made of Chinese characters (1997)」. He disclosed that some of them incurred negative results, but others took positive results.

From a supplementary aspect of Korean in the 「Chinese-Korean dictionary」, a list of Korean to

---

\* Professor, Dankook University



be added newly was presented. It was stated to define that Hap-ja [double letters] which was discussed by Nam Pung-hyeon (1989), Gugyeol Idu hap-ja [double letters with Gugyeol and Idu] which was collected by Korean History Online, iche-ja [variant letters] and Korean arranged by Roh Myeong-ho and others (2000), and a Chinese character (駮) that “\*꺄 [guib]” of Silla language was written.

**[Key Words]** Chinese-Korean dictionary, Korean, Chinese letters, formation methods of characters' shapes, marking of borrowed letters

